

文學碩士學位論文

『牧溪別神祭』 研究

A Study of the 『Mokgyebyeolsinje』



忠北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古典文學專攻

金 善 玉

2010 年 2 月

文學碩士學位論文

『牧溪別神祭』 研究

A Study of the 『Mokgyebyeolsinje』

指導教授 韓 碩 洙

國語國文學科 古典文學專攻

金 善 玉

이 論文을 文學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 年 2 月

本 論文을 金善玉의 文學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定함.

審 查 委 員 長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忠 北 大 學 校 大 學 院

2010 年 2 月

次 例

Abstract	iv
I. 序 論	1
1. 研究史	2
2. 研究 目的 및 方法	5
II. 南漢江 流域 別神祭 傳承 現況과 牧溪別神祭의 位相	7
1. 南漢江 流域 別神祭의 傳承 現況	7
2. 牧溪別神祭의 位相	30
III. 牧溪別神祭의 構成과 內容	32
1. 堂告祀	34
2. 땃고사 (龍神祭)	38
3. 別神祭	40
4. 牧溪別神祭에 부수되는 난장문화	43
IV. 牧溪別神祭의 傳承과 特性	52
1. 牧溪別神祭의 傳承	52
2. 牧溪別神祭의 特性	54
V. 結 論	58
※ 參考文獻	61
※ 부록	65

<표 차례>

(표-1) 전국 단오제 분포 현황	19
(표-2) 여주의 나루 분포 현황	25
(표-3) '三神堂'과 일반적인 경기도 도당곳의 제의 진행	26
(표-4) 남한강 유역 별신제의 전승 양상	28
(표-5) 줄다리기 시 복장 모습	46

<부록 차례>

(부록-1) 전국 별신제 분포 현황	65
(부록-2) 한강의 세곡 집결지 및 조운로	66
(부록-3) 대동여지도 -목계	67
(부록-4) 목계마을 전경 및 목계나루 표지석	67
(부록-5) 2005년 목계별신제 재현 진설 전경	68
(부록-6) 예전의 부흥당 전각과 한글 현판	68
(부록-7) 현재의 부흥당 전각과 한글 현판	69
(부록-8) 부흥당 오른쪽 바위에 치성	69
(부록-9) 부흥당 뒤편에 제물 진설	70
(부록-10) 예전의 부흥당 내부(산신, 서낭신, 용신) 모습	70
(부록-11) 첫 번째 서낭신	71
(부록-12) 두 번째 서낭신	71
(부록-13) 세 번째 서낭신	71
(부록-14) 현재 서낭신	71
(부록-15) 예전의 산신 모습	72
(부록-16) 현재 산신 모습	72
(부록-17) 예전의 용왕신 모습	72
(부록-18) 현재 용왕신 모습	72
(부록-19) 안택곳 전경1	73
(부록-20) 안택곳 전경2	73
(부록-21) 부흥당 당고사 지내기 전의 풍물놀이 모습	74
(부록-22) 부흥당 고사 시 서낭신 앞에 진설 전경	74
(부록-23) 부흥당고사 시 산신 앞에 진설 전경	75

(부록-24) 부흥당고사 시 용신 앞에 진설 전경	75
(부록-25) 부흥당고사에 참가한 제관들	76
(부록-26) 부흥당고사 지내기	76
(부록-27) 부흥당고사 시 소지	77
(부록-28) 2006년 성황단 제축문	77
(부록-29) 2007년 정해년 축문	78
(부록-30) 2008년 무자년 축문	78
(부록-31) 2009년 성황단 제축문	79
(부록-32) 부흥당 주변 금줄 정리	79
(부록-33) 부흥당 신을 영신하여	80
(부록-34) 목계별신제장으로 향하는 제관들	80
(부록-35) 용신을 영신하는 전경	80
(부록-36) 뱃고사를 지내는 모습1	81
(부록-37) 뱃고사를 지내는 모습2(평년 당고사)	81
(부록-38) 뱃고사 시 진설 모습	82
(부록-39) 부흥당 신 별신제장에 모시기	82
(부록-40) 별신굿을 하기 전 유교식 제의 거행 모습	83
(부록-41) 별신굿 장면	83
(부록-42) 제머리마빡이 놀이	84
(부록-43) 목계 줄다리기의 암줄과 수줄 그리고 비너목	84
(부록-44) 줄 운반	85
(부록-45) 목계 게줄다리기 줄	85
(부록-46) 줄다리기 전경	85
(부록-47) 줄다리기 줄로 만든 달집	86
(부록-48) 남사당패 놀이	86
(부록-49) 예전의 가흥창 지 전경	86
(부록-50) 가흥창 지 구획도	87
(부록-51) 가흥창 주초석	87
(부록-52) 황포돛배 시연	88
(부록-53) 목계 강가에 뗏목 시연	88

『牧溪別神祭』研究

金 善 玉

韓國清州

忠北大學人文學院國文國語系

指導教授：韓碩洙

論文提要

本論文研究的是忠州市嚴政面牧溪村傳承的牧溪別神祭。在研究過程中，考察了牧溪別神祭傳承的現狀，並以南漢江流域為中心，分成上游、中游、下游地區，與他地別神祭進行了比較探討。還考察了具有這種傳統綜合慶典文化性質的牧溪別神祭的地位，以及牧溪別神祭獨具的特點。

本論文對南漢江上游地區堤川的五峙村和丹陽的成金村，中游地區原州的梅芝村，下游地區驪州的梨浦村舉行的別神祭現狀及特點進行了比較探討。以南漢江流域為中心傳承的別神祭共同之處，都是在內陸地區舉行的祭儀，主體是村民，巫師來做主祭；呈現出儒教式和巫俗式祭儀合併的形態；祭祀的神是城隍神。以南漢江為中心，上游地區祈願的是具有山村特點的豐農和村莊的平安無事，而下游地區祈願的是以水運為中心的商業圈的繁榮和船隻的平安無事，祭儀的目的不同。中游地區的牧溪村和梅芝村共同點是都處在交通的要道，不過，祈願的目的，梅芝村與上游地區類似，牧溪村與下游地區類似，這是它們的不同之處。南漢江流域別神祭的這種形態對牧溪別神祭產生了影響，為牧溪別神祭成為開放的、綜合慶典式的祭儀，確立其獨特地位，提供了充分的條件。

牧溪別神祭有如下特性：

第一，開放性。一般的別神祭在祭祀活動中嚴守禁忌事項，而牧溪別神祭的主體集團不僅僅是村民，還包括利用牧溪渡口的商人們，禁忌事項並不嚴格。

第二，儒教式祭儀和巫俗式祭儀結合，再加上祭儀上公演的亂場文化，呈現出綜合慶典的祭儀形態。

第三，祈願的目的是商業圈的繁榮。牧溪渡口的興盛促進了水陸交通的發達，商船出入頻仍，因而需要祈願船隻的平安無事和商業圈的繁榮。

第四，這是忠北北部地區唯一一個以商人為中心舉行的別神祭。以南漢江為中心，上游地區主要是山村，所以是以村民為中心舉行的。而牧溪別神祭儘管是內陸地區，但卻因商人們以牧溪渡口為中心頻繁往來推動了商業的發達。因而可以推斷是以商人為中心籌集別神祭的費用請來巫師做神祭的。

第五，所祭之神為女性神。多數村祭中，如果有山神、龍神、城隍神一般都是男性神優先，而在牧溪，儘管有兩位男性神，但最優先的仍然是女性神的城隍神。由此可以證明南漢江流域所祭的神為女性神。

第六，有生活形態投影的牧溪拔河遊戲。牧溪等南漢江流域河谷兇險，水流湍急，險灘隨處可見。船隻在經過這樣的地方時，由於水流湍急，逆流而上的時候要通過兩岸拉繃才能運行。牧溪拔河遊戲可以說就脫胎於這種形態，並且作為附隨牧溪別神祭的亂場文化，在祭儀期間上演。

可見，牧溪別神祭兼具南漢江上游地區和下游地區別審祭的形態，具有復合性和綜合慶典的特性。牧溪別神祭受到京畿道村壇神祭的影響很大。

I. 序 論

본고의 연구대상인 목계별신제(牧溪別神祭)는 충주시(忠州市) 엄정면(嚴政面) 목계리(牧溪里)에 전승되었던 민속행사(民俗行事)이다.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¹⁾는 남한강(南漢江)의 대표적인 강변마을이다. 목계마을은 고려 때부터 문화와 경제를 아우르는 수운(水運)의 요충지(要衝地)이며, 육로의 중심지였다. 육로로는 계림령(鷄立嶺)과 죽령(竹嶺)을 통해 영남지역(嶺南地域)과 연결된다. 또한 남한강 수운의 요충지로서 남한강을 따라 포구(浦口)가 형성·발달되었고, 포구와 관련된 많은 민속 문화가 전승되고 있다.

별신제는 주로 해안지역(海岸地域)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내륙지역(內陸地域)에서도 강을 중심으로 별신제가 제행(祭行)되어 왔다. 별신제는 공동으로 마을의 수호신(守護神)을 제사하는 점에서 동제(洞祭)와 유사하다. 그러나 동제는 동민(洞民)들이 주관(主管)하여 제행하는 유교식(儒敎式)의 형태(形態)를 지니지만, 별신제는 무당이 주관한다는 점이 다르다. 목계별신제(牧溪別神祭)의 경우는 반농반상(半農半商)의 마을로서 또 다른 특징(特徵)이 있다. 뱃길이 무사하고 장사가 잘 되기를 비는 제의(祭儀)로서 지역 주민들은 물론 이곳을 드나들던 상인(商人)들이 중심이었다. 또한 별신굿의 무속적(巫俗的) 제의(祭儀) 형태에서 유교적 제의 형태가 가미(加味)되고 난장문화(亂場文化) 요소(要素)가 혼합된 제의 형태를 띠게 되어 별신제라고 한다. 강원도(江原道) 지역(地域)은 무속적제(巫俗的祭)가 대부분이며, 경기도(京畿道) 지역(地域)은 ‘都堂굿’이라 하여 별신제의 명칭이 다르긴 하나 목계별신제의 제의 양상과 유사(類似)하다. 이로 볼 때 목계별신제는 수운(水運)의 발달(發達)로 인해 물류교류(物流交流) 관계(關係)에 있어 경기도(京畿道) 지역(地域)의 영향(影響)을 받았음을 추정(推定)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민속신앙(民俗信仰)인 목계별신제의 전승(傳承)과 그 특성(特性)을 밝히고자 한다.

1) 『輿地圖書』(1760), 『忠淸道邑誌』(1780), 『忠州郡邑誌』(1899), 『湖西邑誌』(1871), 「구)한국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의 방리조 엄정면에 ‘山溪里’로 되어 있다. 1914년 군면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목계동’이 되었다.

1. 研究史

남한강(南漢江) 유역(流域)의 별신제(別神祭)는 1985년 류덕균에 의해 처음 연구되었다. 류덕균(1985)은²⁾ 유형민속·의식·행사연습에 해당하는 목계의 세시풍속(歲時風俗)의 특유한 성격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는 목계 별신제(牧溪別神祭)는 목계지방에서 봄과 가을에 길일(吉日)을 잡아 행해지던 제천의식(祭天儀式)으로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지정(指定)을 위해 서라도 민속연구(民俗研究) 태도(態度)에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할 것을 주장했다. 이 연구는 당시 현지(現地) 제보자(提報者)의 구술(口述) 자료(資料)를 소개하고 있어 목계지역을 조사 및 연구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基礎資料)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남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별신제 연구는 이창식에 의해서 본격적으로는 의되기 시작하였다. 이창식(2002)은³⁾ 남한강 유역의 별신제(別神祭) 분포와 의미에 대해 목계별신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한강수계(漢江水系)로 남한강(南漢江) 수계(水系)의 목계별신제와 금강수계(錦江水系)의 온산별신제(恩山別神祭)로 구분하였다. 또 남한강 민속실체(民俗實體)를 드러내고 한강의 문화적(文化的) 기반(基盤)을 읽기 위해 민속의례(民俗儀禮)의 역사성(歷史性)과 지역성(地域性)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계별신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이노영(1991), 김정열(2002), 조정현(2004), 윤동환(2005), 김영진(2007), 충주문화원(2004) 등의 것이 있다.

이노영(1991)은⁴⁾ 육상(陸上) 교통의 발달로 인해 상선(商船)들이 없어져서 용신제(龍神祭)와 별신제(別神祭)가 단절되고, 줄다리기도 해방(解放)을 기념하기 위해 2회 실시한 후 단절되었다고 했다. 부흥당(富興堂) 당고사(堂告祀)의 의례(儀禮)를 조사·정리하면서 당시 부흥당의 내부에 있던 서낭각시도와 용신(龍神), 호신(虎神)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과 달랐음을 설명하고 있어 부흥당의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김정열(2002)은⁵⁾ 목계별신제의 기원을 강원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강원도에서 채취한 나무를 영월(寧越)에서 집결(集結)하여 이곳 목

2) 류덕균, 「목계지역의 민속고」, 『중원어문학』 1집, 1985, 139쪽~163쪽.

3) 이창식, 「남한강 유역 별신제의 분포와 의미 - 충주 목계별신제를 중심으로」, 『예성문화』 22호, 예성문화연구회, 2002.

4) 이노영, 「牧溪 富興堂 堂告祀」, 『향토사연구』, 3집,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1.

5) 김정열, 「목계의 정신과 문화」, 목계향우회, 2002, 6쪽.

계를 지났다는 점을 근거(根據)로 제시(提示)했다. 그러나 목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보다는 주민들의 제보로 자료를 모았기에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도출하지 못했다.

조정현(2004)은⁶⁾ 지역의 별신굿과 경제와의 관계 형성과 오늘날의 변화해가는 과정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에 원형적인 별신굿에 대한 편협적(偏狹的)인 관심을 극복하고 현대사회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별신굿의 양상을 경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별신굿의 전통문화 계승에만 맞추어졌던 시각에서 경제적 효과를 도출해 낸 것에 의의가 있다.

윤동환(2005)은⁷⁾ 19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별신굿의 한 세기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는 별신의 양상을 부속(部屬)된 제의(祭儀)와 독립(獨立)된 제의(祭儀)로 나누어 고찰하고 지역별 별신(別神)의 성격과 의미를 파악하여 별신굿의 성격별·지역별로 의미가 다르게 쓰이며, 신격(神格)으로 마을의 주신(主神)과는 다른 신의 의미로 불리거나, 제의를 지칭하는 말로 여신이나 무사귀신을 위한 제의, 마을제의를 넘어선 대규모의 대동적 제의, 임시로 행하는 축제적 성격의 제의라고 하여 별신제가 종합적인 제의임을 증명했다고 할 수가 있다.

김영진(2007)은⁸⁾ 목계라는 지명(地名)의 어원과 위치, 가흥창(可興倉), 부흥당(富興堂), 목계별신제에 대해 간략히 서술(敍述)하였다. 그는 목계별신제를 충주지방의 특징 있는 민속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주로 별신제와 관련된 당고사, 물적 기반과 경제, 별신의 양상과 성격 등에 관해 다루었다.

「忠州의 郷土史」에서는⁹⁾ 목계별신제의 총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남한강 유역의 대표적인 장시축제가 목계별신제임을 밝혔다. 여기에 목계별신제의 전통성(傳統性)과 원형성(元型性)을 도출해냄으로서 정체성(正體性)과 활용방안(活用方案)을 제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2005년 우륵문화제의 일환으로 목계별신제가 시연(試演)되었다. 이 자료는 별신제를 중심으로 목계의 민속문화에 대해 가장 집중적으로 조사된 연구물로서 목계문화

6) 조정현, 「별신굿의 물적 기반과 지역경제」, 『비교민속학』, 비교민속학회, 2004.

7) 윤동환, 「별신의 양상과 성격」, 『한국무속학』 10, 한국무속학회, 2005.

8) 김영진, 「목계별신제」, 『목계별신제 학술대회』, 충주문화원, 2007.

9) 충주문화원, 「목계별신제편」, 『충주의 향토사』, 충주문화원, 2004.

를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기본 토대가 되는 자료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별신제와 줄다리기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김희찬(2006)에 의해 이루어졌다.

김희찬(2006)은¹⁰⁾ 충북 북부지역의¹¹⁾ 별신제와 줄다리기의 존재 양상을 파악하고 소백산맥(小白山脈)이라는 지리적 경계와 남한강 사이의 문화요소를 마을 공동체 행사와 집단놀이를 통해 찾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별신제와 줄다리기의 상관성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충북 북부지역의 별신과 줄다리기 및 동제(洞祭)와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변종근(2007)은¹²⁾ 별신제를 행할 때 연희(演戲) 과정 중 ‘제머리마빡’이라는 꼭두인형과 선유(船遊)놀이의 일종인 목계나룻배에서 행하여지던 불꽃놀이를 소개하였다. 전국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별신제 중 ‘제머리마빡’이라는 인형이 등장하는 곳은 목계별신제가 유일(唯一)하다. 변종근은 선친(先親) 변근수(본명: 변덕성)가 제작하던 ‘제머리마빡’이 인형과 선유놀이에 이용되던 ‘불꽃술마리’의 제작기법(製作技法)을 이어받아 재현(再現)하고 있으며, 2009년 8월에 「꼭두목각 인형 및 그 제조방법」으로 특허등록이 되었다. 연구 결과라기보다는 제작과정에서의 경험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승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화이다.

이창식(2007)은¹³⁾ 목계별신제의 문화재적 가치를 강조하고, 목계별신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면서 연행 민속이 공연물 형태로 전락(轉落)하는 것과 전승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문화 유산적 가치를 짚어보고, 탈맥락화한 별신제를 현재 동제 형태로 전승하는 것과 연결하여 되돌려 놓자는 것을 강조하였다.

목계별신제에 대한 연구는 현지 제보자의 구술 자료와 현장 조사 자료가 대부분이고, 전승되다가 단절되는 시기를 거쳐 정확한 고증(考證)이 어려운 실정이다. 2005년과 2007년에 목계별신제 학술대회에서 몇 가지 한정된 주제에 대한 논문들이 발표되면서 목계별신제의 복원에 대한 관심이

10) 김희찬, 「충북 북부지역의 별신과 줄다리기의 상관성 고찰」, 『충북학』 8집, 충북학연구소, 2006.

11) 충주, 제천, 단양지역을 말한다.

12) 변종근, 「목계의 전승 문화」, 『목계별신제 학술대회』, 충주문화원, 2007.

13) 이창식, 「목계별신제의 문화재 지정방안과 문제점」, 『목계별신제 학술대회』, 충주문화원, 2007.

집중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남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별신제들의 제반사항과 목계별신제의 위상을 알아보고, 남한강 유역의 별신제들을 분석하여 목계별신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研究 目的 및 方法

이 논문은 목계에 전승되고 있는 ‘牧溪別神祭’에 대한 연구이다. 남한강 유역을 上流-中流-下流로 나누어 민속신앙인 별신제가 전승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목계별신제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즉, 지속적으로 전승되어온 축제적(祝祭的) 전통문화인 별신제(別神祭)가 문화적 전통과 기반(基盤) 속에서 어떻게 전승되어 왔으며,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별신제가 차지하는 위상과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목계별신제의 특성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별신제는 일반적으로 해안지역에서 전승되어 왔지만, 특이하게 남한강(南漢江) 지류(支流)를 따라 분포하고 있는 江原道, 忠淸北道, 京畿道 地域에서도 전승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기존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남한강 유역을 상류-중류-하류로 구분하여 별신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종합 축제적 성격을 지닌 목계별신제의 전승현황을 알아보고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첫째, 각종 지리지와 관련 문헌자료를 통해 당시 사회 문화적 상황과 전승문화의 기록들을 수집하여 분석을 할 것이다. 또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현지 지역민들의 구술 자료와 기록·민속자료와 함께 문화전승 현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시대적 상황과 지역적 특성에 중점을 두어 별신제의 현황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목계별신제의 특성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㉞ 남한강을 중심으로 상류-중류-하류의 별신제들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고, ㉟ 남한강유역 별신제와 목계별신제를 비교·검토해서 목계별신제만의 특징을 도출할 것이며, ㉠ 목계별신제의 형성과정과

전송 요인에 대해 고찰하여 목계별신제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II. 南漢江 流域 別神祭 傳承 現況과 牧溪別神祭의 位相

목계는 남한강의 중류에 자리한 강가 마을이다. 내륙지역(內陸地域)이면서 남한강이 접해 있고 수운(水運)이 발달하여 고대부터 교통의 중심지역 역할을 해왔다. 또한 남한강 상류지역의 문화와 하류지역의 문화를 이어주던 교역로(交易路)였다. 이에 상류와 하류의 문화적 영향을 받아 형성된 적층적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보수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문화적 성격은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물길은 문화의 교통로이다. 물길의 교량지인 목계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길목이었다. 그리하여 충북 북부지역인 목계문화는 호서문화(湖西文化)로 불리게 되고 충청문화의 한 축을 이루는 성과를 표출하였다. 또한 정치적·문화적 거점이라는 이유로 일찍부터 발달되어왔다. 물길은 그만큼 인근지역과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는 구실을 해 온 것이다. 이에 목계를 중심으로 남한강 유역을 상류, 중류, 하류로 나누어 별신제의 전승과정을 살펴보고,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상류지역에서는 단양갈천별신제(丹陽葛川別神祭)와 제천오터별신제(堤川오터別神祭)를 고찰하고, 중류지역에서는 목계리와 인접한 원주(原州)의 매지리(梅芝里) 단오제(端午祭)를 고찰하고, 하류지역에서는 여주(驪州) 이포리(梨浦里) ‘三神堂’인 별신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1. 南漢江 流域 別神祭의 傳承 現況

(1) 상류지역

1) 丹陽 葛川別神祭

갈천리 별신제는 오래 전에 큰 비가 온 적이 있었는데 마을이 모두 물에 잠기고 무너졌다고 한다. 이 때 사람도 많이 죽어서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하여 별신제를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갈천 마을 사람들은 신의 도움을 빌어 자연 재해로부터 화를 면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때 별신제에 소요되는 경비가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어 별신제를 행하지 못했을 때 큰

불이 나서 마을 전체가 위기에 처한 일이 있었다. 이 때 주민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별신제를 지내지 않아서 동티가 났다고 여겨 9년에 한 번씩 다시 별신제를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葛川里’는 현재 단양군(丹陽郡) 대강면(大崗面) 성금리(成金里)로서 화전민(火田民)이 모여 형성된 산촌마을이다.

갈천마을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成金里’라 하여 대흥면에 편입되었다가 1917년 대흥면과 금강면이 통합되어 대강면 성금리로 개칭되었다. 성금리 마을은 안성금과 바깥성금으로 나뉘어져 있다. 예전에는 화전민이 많이 모여 살던 마을로 안성금이 중심이 되어 형성되었으나, 현재는 바깥성금이 마을의 중심이 되었다. 두 마을 모두 각각 서낭당고사를 모셨는데, 안성금 마을은 낮에 암서낭당에 제를 올리고, 바깥성금 마을은 밤에 바깥서낭당에서 당고사를 모셨다고 한다. 예전에 있었던 서낭당을 해체했을 때 상량문(上樑文)에 ‘大正 11년(1922년)’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당집이 생기기 전에는 바깥서낭당 옆에 있는 고목(古木)을 서낭신으로 모신 것으로 보인다.¹⁴⁾

‘葛川別神祭’는 ‘成金里 別神굿’이라고도 한다. 현재 성금리 주민들이 ‘成金別神굿’이라 하는 것은 현재의 마을 명칭을 따른 것이다. 예전의 기억을 가진 주민들은 ‘葛川別神굿’이라고 한다. 오래 전부터 전승되어온 갈천마을의 역사로 볼 때, 『輿地圖書』와 『丹陽郡邑誌』에¹⁵⁾ 표시된 ‘葛川里’의 지명을 따라 ‘葛川別神祭’라 호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마을 명칭은 현재 ‘成金里’로 호칭하게 됨에 따라 ‘成金里’로 하도록 할 것이다.

성금리에서는 평년에는 ‘平告祀’라 하여 서낭당에 ‘堂告祀’를 지내고, 9년마다 한 번씩 별신이 드는 해에는 ‘大告祀’라 하여 ‘葛川別神祭’를 지낸다. 당고사(堂告祀)는 정월 14일 자정에 서낭당에서 고사를 지내며, 제관(祭官) 1명, 축관(祝官) 1명이 있어 유교식 제의 절차에 따라 간단하게 제를 올린다. 준비과정은 우선 도가집이라 하여 유사를 정해서 제 올릴 음식 준비를 한다. 정월 14일 저녁에 바깥성금 당집 앞의 당숲에 장작불을

14) 이창식, 「남한강 유역 별신제의 분포와 의미 - 충주 목계별신제를 중심으로」, 『예성문화』 22호, 예성문화연구회, 2002, 19쪽.

15) 『輿地圖書(1760년 경)』, 『丹陽郡邑誌(1900년 경)』의 방리조에는 ‘葛川里自官門南距五十里’로 기록되어 있다.

놓게 되는데, 장작불은 풍물을 치면서 가서 살핀다. 제(祭)를 마치고 도가 집에 모여 음복(飮福)을 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다. 당고사는 현재도 매년 지내고 있다.

갈천별신제는 정월 보름날 무당들을 불러 당고사를 지낸 다음 별신굿을 제행(祭行)한다. 당고사는 유교식 제의에 무당들이 주관하는 무속식 제의가 결합된다. 그런 다음에 줄다리기·윷놀이·농악놀이 등이 이어진다.

갈천별신제는 ‘백곡제’, ‘성금별신굿’, ‘성금별신제’ 등으로 호칭하며, 단양에서 유일하게 제행되는 별신굿이다. 이에 단양군 차원에서 갈천별신제의 전통을 복원하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노력 중이다. 1970년대에 중단된 갈천별신제는 단양문화원에서 주최하여 재현행사를 벌이기도 하였다. 갈천별신제는 일제시대 때 화전민이 살 때가 마을이 가장 컸다는 것으로 보아 이때에 가장 성행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갈천별신제의 목적은 마을의 액운(厄運)을 막고 풍농(豐農)을 기원하기 위해 제행되었다. 태백산신인 단종대왕의 혼을 모셔와 성금리의 여서낭신과 합궁하는 형식을 취한다.

별신굿은 유교식 절차와 무속식 절차가 병행하여 지내지만, 제의 주관자는 무당이다. 제의 준비과정은 무당을 초빙하면, 제의 날짜에 맞추어 5~6명의 무당이 함께 와서 제행한다. 제의 날짜는 정월 대보름날로 정해놓았지만,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서 날을 받아 제행한다. 마을 회의를 열어 도가집을 선정한다. 선정된 도가집은 대문 앞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린다. 또 출입을 삼가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禁)한다. 성황당에도 금줄을 치게 되는데 일반 금줄과는 다르다. 금줄은 가늘게 꼰 원세끼를 여러 번 꼬아서 굵게 만든다. 짚으로 만든 말 모양의 인형과 짚신을 1개씩 끼워서 금줄을 친다. 말 모양의 인형은 神이 타고 갈 말이며, 짚신은 神이 신고 갈 신발이라고 한다. 이는 경상도와 충청도를 연결하는 죽령고개의 교통에 대해 神의 보살핌을 필요로 함에 따라 마을사람들의 염원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날을 받게 되면 금기(禁忌)를 하게 되는데 여자들은 외출을 삼가며, 남자들은 부정한 것을 보거나 듣지 않으려고 주의한다.

祭의 비용은 마을 공공기금에 집집마다 각출한 재원을 합하여 마련한다. 예전에는 3일~7일 정도 별신제를 행하였지만, 근래에는 경비 마련이 어려워서 하루 만에 모든 제의를 마친다. 제의(祭儀) 절차는 신내림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신내림을 받기 위한 신장대는 깊은 산 속에서

곧게 자란 소나무로 한다. 깊은 산속에서 구한다는 것은 부정이 타지 않고 청결한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신과 인간들을 연결해주는 매개체(媒介體) 역할을 상징하는 것이다. 신성한 제의를 올리기 위한 준비과정 중의 하나이다. 소나무는 길이 3m, 지름 약 20cm의 크기를 구하여 손잡이 부분에 한지를 감싸서 사용한다. 신대가 마련되면 암서낭당으로 가서 신내림을 받게 된다. 신내림은 마을 사람들 중에 신대잡이를 선정한다. 다음은 무당이 신내림을 청하기 위해 주술을 외운다. 신내림에 성공하면 신대가 흔들리게 되고 신내림을 받은 것이다. 신내림을 받게 되면 서낭신을 모시고 바깥서낭당으로 간다. 솔잎에 정화수를 묻혀서 사방으로 뿌리면서 서낭당 앞과 큰길가 등 주위를 돌려가며 부정풀이를 한다. 모시고 온 암서낭님을 바깥서낭님 옆에 좌정시킨다.

제물(祭物)은 소머리(돼지머리)·과일·술·메·포 등을 진설한다. 제의 진행은 무당들이 하지만 제를 올리는 것은 도가로 뽑힌 사람들이 한다. 제의 진행은 축문을 읽고 소지(燒紙)를 올린다. 축문은 예전에 모두 태웠으나 현재는 태우지 않고 할 때마다 재사용한다. 축문의 내용은 마을의 무사안녕과 병마의 재액(災厄)이 없게 하고, 풍작(豐作)을 기원하는 내용이다. 별신제를 제행할 때에는 정월 초하루부터 대보름까지 옷놀이를 중심으로 즐다리기도 하였다. 술집, 노름판, 투전, 엿장수, 잡화상 등이 모여 난장을 형성하기도 했다. 주로 옷놀이를 즐겼는데 단체로 하기도 하고, 개인별로 즐기기도 하였다. 이를 ‘擲柶놀이’, ‘擲柶大會’라고 하였다. 이 때 사용한 옷은 굵은 싸리나무를 약 20cm 정도로 잘라 4등분 하여 옷가락을 만든다. 이를 ‘가락옷’이라고 했다. 즐다리기는 외줄다리기로써 남성과 여성으로 편을 나누어 당겼으며, 여성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점에서 풍농을 기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는 지방 민중들이 별신제를 무척 기다렸던 축제였으며, 1920년대까지 지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별신제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갈천별신제를¹⁶⁾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강 유역의 산간마을에 전승되는 대표적인 서낭제 계통의

16) 현재 성금리 마을에서도 계속 전승되고 있으며, 단양군의 유일한 별신제로서 가치를 인정하여 단양문화원의 후원으로 葛川別神祭가 행해지고 있다.

마을축제다.

둘째, 단양지역의 유일한 별신제이다.

셋째, 마을곳의 형태지만, 무속적 제의가 결합되고 난장성이 첨가되는 종합 축제적 제의양상을 띠고 있다.

넷째, 보편적인 서낭신 모시기와는 달리 암서낭신을 모시고 바깥서낭신에게로 가서 제행한다. 음양(陰陽)의 신성한 결합을 통해 제액초복(除厄招福)의 의례를 진행한다.

다섯째, 신장대에 신내림은 신계와 인간계를 연결해 주는 소통(疏通)의 의식이다.

여섯째, 말 인형과 짚신을 통해 신을 대접함으로써 인간들의 소원성취(所願成就)의 뜻이 담겨 있다.

일곱째, 금줄을 만들고 치는 과정과 서낭당에 치는 금줄은 보통의 금줄보다 3배 정도 굵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갈천별신제가 제행되는 곳은 지역적으로 산간마을이며, 남한강 상류지역에 속한다. 남한강 상류지역이면서도 남한강에 접하지 않은 마을이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남한강 뱃사람들과의 만남에 의해 물물거래를 이루었다. 이로 인해 강과 산을 경계로 하여 민속의 교류를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평년에 지내는 당고사는 동제로서 제행되면서 별신제가 드는 해에는 당고사를 먼저 지내고, 별신굿을 제행하였다. 이는 갈천별신제의 중심축위가 서낭당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제천 오티별신제

제천시(堤川市) 수산면(水山面) 오티마을은 ‘오티봉수’가 있었던 전형적인 산간 농촌 마을이다. 또한 남한강 상류와 연결되어 강과 접한 마을이기도 하다. 오티봉수는 조선시대 때 영남과 서울의 정보 전달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조건은 자연의 신에게 무사안녕(無事安寧)을 기원하는 제의가 필요했을 것이다. 봉수(封守)에 대한 神, 山神, 江에 대한 神 등에게 어떠한 식으로든 기원(祈願)을 했을 것이다.

오티는¹⁷⁾ 한자로 ‘五峙’라 하여 오티고개의 이름을 따서 ‘오현(五峴)’, ‘의티(衣峙)’라고도 한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수산면에 편입하여 ‘오티’라고 하였다.

오티별신제의¹⁸⁾ 유래는 다섯 개의 봉우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다섯 봉우리 가운데 봉화재, 말구리재, 매차골, 흰뜨재, 한나물재에 서낭당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봉화재에는 두 개의 서낭당이 있다. 이를 상당(큰재서낭)과 하당(작은재서낭)으로 부른다. 오티의 경우에는 산신이 아닌 고개신 또는 거리신의 개념이 강하므로 들신, 별신 등의 의미가 강하다. 이 때문에 마을의 길신을 독특하게 ‘別神’이라고 인식하는 듯하다. 실제로 제의의 성격이 대보름 마을 거리굿의 성향을 보인다.

오티마을에서는 평고사(平告祀)라 하여 평년에 산신제와 서낭제를 지낸다. 또 대고사(大告祀)라하며 2년에 한 번씩 별신이 드는 해에 별신제를 지낸다. 윤달이 든 해에 행해졌으나, 요즘은 보통 홀수년도에 행해지고 있다. 별신제는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마을 곳의 형태로 열사흘 날은 산신제를 지내고, 대보름날은 서낭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동신제(洞神祭)의 양상을 띠고 있다. 오티별신제는 복합적·다면적 성격을 지니며 의례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오티 산신당에 좌정하고 있는 산신은 마을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주관하는 최고의 신이다. 오티마을에는 산신당 이외에도 서낭신을 모시는 하당 및 본당이 존재한다. 마을에 들어오는 외부의 잡귀, 액, 살, 재앙 등을 막아 주는 주술적(呪術的) 방어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금기(禁忌)를 지키는데 금기를 어기면 동티난다고 믿는다. 제당은 모두 4곳으로서 산신당, 상당, 하당, 본당이 있다. 산신당은 마을 뒷산인 주산(主山)에 있으며, 상당은 다섯 고개의 최고봉에 위치한다. 하당은 상당 아래에 있다. 본당은 마을 한 가운데 있는 ‘느티나무’이다. 본당은 마지막 제의 장소이기도 하다. 별신제 행사 때에는 일곱 개의 잔을 놓고 지낸다.

제일(祭日)은 정월 보름날이라고 하나 마을 최고 원로회(만동회)에서 정월 보름을 전후해서 택일한다. 이 때 제주를 선출한다. 제주¹⁹⁾는 생기(生

17) 김우철역주, 「충청도」, 『여지도서』 10, 흐름, 2009, 원문 65쪽. ‘南遠南 在江之南’, ‘五峙里 距府二十五里 編戶 一百十三戶 男一百五十口 女一百六十一口’

18) 오티 별신제는 이창식의 「마을축제 오티별신제」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19) 일반적으로 마을 원로회의 지도자, 이장, 마을 최고령자가 선출된다.

氣)와 복덕(福德)을 맞추고 부정(不淨)하지 않은 사람을 가려낸다. 부정한 사람이란 일 년 동안 사망과 출생에서 생기는 부정이 없고, 노약자나 병자, 임산부 등이 있어서도 안 된다. 부인의 생리가 있어서도 안 된다. 조건에 맞는 제주(祭主)로 뽑히게 되면 스스로 사퇴할 수 없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한다. 제주의 명칭²⁰⁾은 제관(祭官), 고양주(供養主), 축관(祝官), 조역(助役)이다. 제주의 선출은 제당마다 각각 제주를 선출한다. 산신당의 경우는 마을 전체 중에서 제주(祭主)를 선발하며, 나머지 제당은 각 반에서 선출하여 구성한다. 산신당의 제주 인원은 제관 1명, 고양주 1명, 축관 1명, 조역 3명이다. 4개의 제당에 총 25명의 제주가 필요하다. 제주의 역할은 엄격히 구분된다. 제관의 역할은 제의를 주관한다. 축관은 독축(讀祝)을 맡아서 한다. 고양주는 제물을 마련하고, 제의 장소를 청소한다. 조역은 희생물(犧牲物)을 준비하고 고양주를 보조한다. 금기사항은 부정한 생각과 행동을 삼가야 한다. 부부간의 관계도 금해야 한다. 담배·술도 삼간다. 금줄은 원세끼에 흰 한지를 매단다. 산신당과 우물을 청소한 후에 금줄을 친다. 신과 인간의 공간을 구분하는 경계인 것이다. 산신당과 상당에는 5일 전부터, 하당에는 3일 전부터 친다. 황토(黃土)는 당산에서 깨끗한 것을 퍼 와서 제관들의 집 대문 왼쪽과 오른쪽에 세 주먹씩 뿌려서 재액을 막도록 한다. 이는 부정을 막는다고 생각한다. 당 우물은 제의 5일 전에 주변의 잡나무나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이 치우고 우물을 모두 퍼낸 후 깨끗한 정안수를 사용하여 음식 장만을 한다.

제물의 준비는 고양주의 몫이다. 12일부터 제 올릴 준비를 한다. 고양주의 집에도 금줄을 치고 금기를 지킨다. 산신당에 금줄을 마련하여 치고 술 빗을 쌀과 술단지, 누룩 등을 준비하여 산신당으로 올라간다. 당 우물 청소를 하고 정화수를 떠서 밥을 짓는다.

제주(祭酒)는 제일 3일 전 산신께 막걸리를 올리고 재배를 한 후, 고양주를 빙는다. 산신당 아래에 햇볕이 잘 드는 장소를 골라 술 단지 물을 구덩이를 판다. 밥 짓고 남은 찌꺼기로 땅을 뜨겁게 달군 후, 그 위에 술 단지를 넣고 단지 뚜껑을 덮는다. 언 땅을 녹여 따뜻하게 하면 술이 빨리 익기 때문이다. 술단지를 묻고 흙으로 덮는다. 짚으로 둘러싸고 술가지를 덮는다. 그리고 금줄을 친다. 이것을 ‘조라술’이라고 한다.

20) 일반적인 명칭은 제관(祭官), 유사(有司), 산제사(山祭司), 집사(執事), 고양주(供養主), 산제도(山祭都) 등이다.

제물은 떡(백설기)²¹⁾, 팔시루떡, 술, 메, 삼색실과(밤, 대추, 잣), 포(통복어), 고기(돼지, 소) 등이다. 백설기는 산신당에 올린다. 팔시루떡은 본당 서낭신에게만 올린다.

희생물은 돼지와 소머리를 쓴다. 돼지는 검은 수돼지를 사용한다. 내장을 제외한 모든 것을 바친다. 돼지고기를 5토막으로 잘라서 삼는다. 큰 그릇에 담아 산신당으로 옮긴다. 산신당으로 옮길 때에도 뒷다리→몸통→앞다리→머리 순서대로 가져간다. 예전에는 황소를 통째로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사정상 오늘날 소머리와 다리 4개를 올린다고 한다.

오티별신제는 2일간 행해진다. 첫째 날은 산신당과 매차골 서낭과 본당에서 제행된다. 해질 무렵 오후 5시경에 올라가서 제물을 차린다. 산신제는 유교적 제의로 진행된다. 제물은 백설기, 술, 밥, 고기, 삼색실과 등이다. 마을 전체의 안녕과 풍농을 위한다. 제의는 제배-헌작-독축-소지-청배의 유교식 제의 방식에 따라 진행된다.

오티별신제의 축문은²²⁾ 한문으로 썼으나 현재는 한글 위주의 제문을 사용한다. 유교식 제문의 기본 틀로 되어 있다. 축문의 내용은 마을신에게 오티마을의 소원을 비는 축원(祝願)의 성격을 지닌다. 우선 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 마을의 평화와 안정을 꾀하고 재앙이 없게 해 달라는 내용이다. 또 농사 풍년, 무탈한 마을 행사 등을 위한 기도문이다. 제의가 끝나면 소지를 올리게 되는데 대동소지와 개인소지로²³⁾ 나눌 수 있다. 소원을 빌고 나면 불을 붙여 태우는데 잘 타서 위로 높이 날아가 버리면 좋

21) 3되 3홉의 뭉쌀로 백설기를 만든다.

22) 산신제의 축문

유세차 신사정월 경인십오일 신축유학 감소고우

산천지신 세제신사 치차단심 복결신령 조림하토 시유상원 약진미성 부혁거민 유령유신 일구동중 종인지원 유원필수 무편무사 전피령은 백실함염 도필함흥 초례고상 천병백해 후거제앙 일시함열 근백배 고사우 신 상향

오티리 매차골 서낭제 축문

유세차 신사정월 경인십오일 신축유학 000감소고우

성황지신 천병백해 유령유신 조림하토 일시답멸 무편무사 복포신명 호도원적 유원필도 부활거민 소멸해상 도필함흥 종인지원 세제신사 존등추색 백실함염 시유상원 풍동농상 몽은하해 원축질액 치차단심 일시동리 신포복덕 약진진성 공개복강 일구촌중 초례고상 세세유증 전피경은 후거제앙 근백배 고사우 신 상향

23) 대동소지는 “이 소지는 다른 소지가 아니오라 우리 오티 마을 한 해 농사 잘되고 아무쪼록 아무 탈없이 만수무강하길 바라는 소지오니.....”라고 하고, 개인소지는 “이 소지는 다른 소지가 아니오라 오티 0반 김00 소지올시다. 이 집안 사람들이 아무쪼록 올해도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길 바라옵니다.....”로 한다.

다고 여긴다. 산신제가 끝나면 하산한다.

서낭제는 제물 진설(陳設)부터 시작된다. 제물은 팔시루떡과 술을 올린다. 산신제에서 사용한 것은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새것으로 준비한다. 제의 절차는 재배-헌작-독축-소지의 제의 방식에 따라 진행된다. 축원은 1개 반 주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한다. 제의가 끝난 후의 제물은 마을신의 행운과 복덕이 깃들여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재수 있는 음식이라 하여 주민들 모두가 모여 음복을 하게 된다. 음복(飮福)을 하는 동안 다음날 제의에 관하여 회의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의 유대관계는 더욱더 긴밀해지고 강화된다. 또한 하나라는 동질감을 느낀다.

2일 날의 제의는 아침에 ‘상당 대고사’부터 시작이 된다. 여자들은 신에게 올릴 제물 준비를 한다. 또 음식 장만을 하여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한다. 제주들은 미리 상당으로 올라가 제의 준비를 한다. 남자들은 제의 도구와 농악대의 점검 등을 한다. ‘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쓴 깃발을 준비한다. 서낭대는 사람 손이 닿지 않은 깨끗한 소나무로 하루 전날 준비한다. 이는 서낭신이 강림(降臨)을 하기 위한 신대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참여를 배제(排除)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장을 하고 제를 올리는 동안 춤을 춘다. 농악대를 앞세우고 상당에 올라가 제를 마치면 깃대를 앞세우고 농악을 울리며 다섯 곳의²⁴⁾ 서낭당을 돌며祭를 지낸다.

별신제의 마지막 장소는 ‘본당’이다. 마을 중심에 자리한 서낭당은 둘레가 6m가 넘는 노거수(느티나무)이다. 산신부터 모셔온 다섯 서낭신과 불은당 서낭신, 느티나무 서낭신 모두를 좌정(坐定)시키고 제행(祭行)된다. 농악대가 느티나무를 두 바퀴 돌며 첫소리를 내어 잠신들의 접근을 막는다.

제물은 황소머리와 다리 네 족, 백설기, 팔시루떡, 북어포 2개, 탕, 삼색실과(대추, 밤, 꽃감), 초, 향, 소지종이를 준비하여 진설한다. 술잔은 일곱개를 준비한다. 수호신(守護神)이 일곱 신이기 때문이다. 제의 절차는 재배(再拜)-헌작(獻爵)-소지(燒紙)올리기 순이다. 대동소지를 먼저 올리고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개인소지를 올린다. 음복을 한 후, 식사를 하는 등 잠시 휴식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송신과정(送神過程)이 남은 것이다. 농악대를 앞세워 본당으로 가서 신을 청배한다. 청배를 기원하는 제의가 진행

24) 큰봉화독서낭당, 말구리제, 구실제, 흰티제, 해너물제이다.

되는 동안 농악은 빠르고 경쾌하게 울리며 무동과 여장한 사람들이 춤을 춘다. 또한 서낭대잡이의 대 흔들림으로 신이 감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관이 서낭목 옆에 신을 좌정시키고 머리를 조아리며 예로서 송신 인사를 한다. 모든 제의가 끝나면 서낭목에 서낭대를 세우고 금줄로 묶어 놓는다. 한바탕 농악놀이를 한 후에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으면서 한 해의 농사 등을 의논하면서 덕담을 주고받는다. 남은 음식은 가구 수에 따라 똑같은 양으로 나누어 먹는데 이것을 봉개라 한다.

별신굿을 마친 후에는 풍물을 치고, 무동놀이, 허재비놀이 등이 연행된다. 허재비놀이는 일 년 동안 마을에 쌓인 부정과 잡귀들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제액을 허재비에 실어 내쫓는 형식을 취한다. 남녀 허재비를 어르고 달래며, 매질도 하고 먹을 것을 대접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멀리 던져 버리고 화살을 쏘고는 호령을 한 후, 칼을 던져 칼끝이 바깥으로 향하면 모든 액운도 함께 나갔다고 여긴다.²⁵⁾

오티마을의 농악놀이는 제를 지내는 동안 연행된다. 농악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57명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1998년에는 26명 중 9명이 스스로 부정하다는 이유로 제의 참여를 거부하였다. 부정(不淨)의 이유는 죽은 개의 모습을 본 경우, 초상을 당한 경우, 부인이 생리를 하는 경우 등이었다. 2000년에는 30여 명 정도가 참여하였다. 이는 마을 인구수의 감소로 인한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오티별신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간 마을에서 제행된다.

둘째, 정보 전달 매개체인 오티봉수가 있었다.

셋째, 대보름날 서낭 돌기의 거리제를 한다.

넷째, 남성위주이며, 여성의 참여를 배제한다.

다섯째, 농악놀이가 수반(隨伴)된다.

여섯째, 2일간 제행된다. 1일은 산신제, 2일은 서낭제를 지낸다.

일곱째, 산신제는 산신당에서만 지내고, 유교식으로 하며 고정적이다.

여덟째, 한밤중에 지내며 대동제의 성격이 부각된다. 제주는 마을 전체 주민 중에 선출한다.

25) 김희찬, 「충북 북부지역의 별신과 줄다리기의 상관성 고찰」, 『충북학』 제8집, 충북학연구소, 2006, 177쪽.

아홉째, 서낭제는 상당에서부터 시작하여 본당에 이르기까지 서낭당을 돌며 제행된다. 무속식으로 이동적 성격을 드러낸다. 낮에 제행되며, 제주는 각 반에서 선출한다.

열 번째, 산신제에서 쓰는 소를 마을 본당 서낭제에서 쓴다.

열한 번째, 농악놀이와 허재비놀이를 한다.

오티별신제는 충청도 지역의 산신제 유형으로 풍농과 무사를 기원하는데 있다. 또한 의례지향적(儀禮指向的)이며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이면에는 강원 산간지역 성향인 서낭제 양상이 나타난다. 오티별신제의 축제적 양상은 농악이 한데 어우러져 신과 인간이 함께 하는 집단적 놀이의 형태를 보여준다.

남한강 상류지역의 별신제는 산간마을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형성·전승되었다. 풍농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목적과 서낭신이라는 대상신격은 같다. 그러나 오티별신제의 경우 자연지형적 조건에 의해 정보통신(情報通信) 전달매체인 봉수(烽燧)가 있음으로 해서 자연신에게 기원을 필요함에 따라 격년(隔年) 주기로 제를 올렸으며, 갈천별신제의 경우는 마을의 무사안녕을 위해 9년을 주기로 제를 올렸다. 이는 평년에 서낭신을 대상으로 ‘당고사’나 ‘산신제’를 지냈어도 별신제를 지낸다는 것은 자연신에게 기대어 사는 산간마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중류지역

1) 원주 매지리 단오제

단오(端午)는 오랜 유래를 지니는 일반적인 명절로 여러 가지 민속행사가 전승되어 왔다. 단오의 기원은 중국 초나라 회왕 때로부터 전해진다. 굴원이 ‘떡라수(汨羅水)’에 몸을 던져 자살하였는데, 그 날이 5월 5일이라 그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단오의 기원이다.

강원도(江原道) 원주시(原州市) 흥업면(興業面) 매지리(梅芝里) 마을은 백운산²⁶⁾ 서쪽 자락에 위치한 소박하고 작은 산간마을이다. 예로부터 전

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전어치 마을’이라고도 하였다. 원주는 강원도의 중심지로서 문물의 교류통로였다. 원주는 삼한시대에 마한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²⁶⁾ 백제가 마한을 통일하고 백제의 영토가 되었었다.

원주 매지마을의 별신제는 단오제로서 행해진다. 보통 별신제가 정월 대보름을 중심으로 제행되는 것과 달리 5월 단오날에 행해지는 것이 특이하다.

마을의 공동체 신앙 중 단오절에 제의를 행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많지 않다. 2007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조사한 자료를²⁸⁾ 토대로 분포지역을 살펴보면 주로 동해안 지역에서 제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경기도, 인천,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에서도 전승되어 왔다. 단오절을 기준으로 제를 거행한 지역은 강원도 65곳, 경상북도 34곳, 경기도 8곳, 서울 2곳, 인천 2곳, 전라남도 1곳, 충청남도 1곳, 충청북도 1곳 등 총 114곳이다. 이것은 음력 5월 5일 또는 양력 5월 5일로 조사된 지역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래는 음력 5월 5일이지만, 현재 모든 것을 양력으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전승 과정에서 양력과 음력 모두를 포함하게 된 인식의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음력 4월 15일로 조사된 곳이 강원도 지역에 4곳이 있으며, 서울지역에 2곳이 있다. 이 지역 또한 단오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기에 포함시켰다.

제의 명칭은 강원도의 경우 성황제, 동제, 서낭제, 당고사, 산신제로 사용되었다. 이 중에서 60% 정도가 성황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경기도의 경우는 산신제, 장승제, 동제, 단오제, 도당제, 거리제 등으로 호칭하였다. 이 지역은 주로 단오제라 칭한다. 경상북도 경우는 한당제, 동제, 자인 단오제, 한 장군 추모제, 당고사, 서낭제, 동제사, 성황제 등으로 호칭하였다. 그 중 60% 이상이 동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로 볼 때 남한강 상류지역은 단오(端午)·백중(百中)이 중시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주 매지마을 단오제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조사과정에서 조사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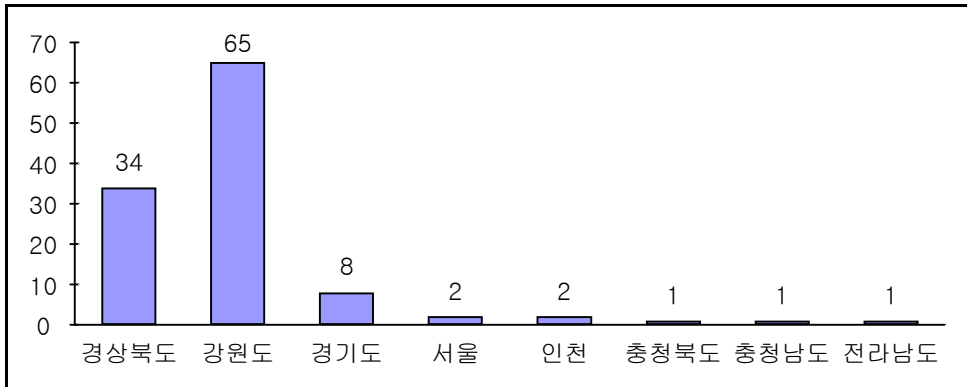
26) 김우철 역주, 「여지도서」 15, 『강원도』, 흐름, 2009, 원문 33쪽. ‘白雲山 在官門南三十里上有大井’

27) 趙焄哲, 「백운산 천은사에 대한 고찰」, 『석보 정명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2000, 506쪽.

28)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 신앙 上, 下』, 국립민속박물관, 2007.

관심영역에서 소외되었다거나 아직도 마을공동체 신앙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표-1) 전국 단오제 분포 현황



매지리 단오제는 명칭 자체만 보더라도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분명 지역은 강원권이지만 강원도에서 사용하지 않는 ‘端午祭’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오제’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 지역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매지리 단오제에 대한 명칭은 ‘原州 白雲山 端午서낭제’²⁹⁾, ‘興業面 梅芝里 山神祭’³⁰⁾, ‘檜村 端午祭’³¹⁾, ‘檜村마을 山神祭’³²⁾등으로 호칭되었다. 이것은 ‘梅芝里 端午祭’가 절정기였을 때부터 점점 쇠퇴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규모의 축소화로서 마을단위의 신앙으로 변화된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매지리 단오제 제일은 음력 5월 5일이다. 단오제는 단오날을 기준으로 100일 전부터 준비한다. 시작은 대동계원들의 회의부터 진행된다. 모두 모여 비용을 정하여 추렴한다. 다음으로 제주와 유사를 정한다. 제주의 선정 기준은 만세력(萬歲曆)을 참조하여 생기가 맞는 사람 1명과 복덕이 좋은 사람 1명, 집사 1명을³³⁾ 선정한다. 제관의 복장은 옥색계통의 도포로서 머

29) 장정룡, 「원주 백운산 단오서낭제」, 『태백』 6월호, 강원일보사, 1993.

30) 김의숙, 「원주군의 민속」, 『원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원도·원주군, 1994.

31) 이한길, 「원주시 매지리 회촌마을 단오제에 있어서 신격의 정체」, 『한국민속학』 17집, 2008.
; 원주시, 「민속문화재편」, 『원주시사』, 원주시, 2000.

32) 신경철, 「지명에 나타난 원주의 토속신앙」, 『강원민속학』 19집, 2005, 213쪽~214쪽.

33) 집사는 주로 대동계장이 맡아서 한다. 제물 준비와 진설, 헌작 등 제사의 일체 일을 총괄하며

리에는 유건을 쓴다. 3년 상이 나간 사람, 부인이 임신하지 않은 사람, 부정한 것을 보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 선정한다. 제주로 선정이 되면 준수사항과 금기사항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일을 기준으로 최소 일주일 전부터 금욕을 해야 한다.

둘째, 매일 목욕재계를 해야 한다.

셋째, 부부는 각방을 쓴다.

넷째, 초상집에 문상을 가지 않는다.

다섯째, 아픈 사람의 문병을 가지 않는다.

여섯째,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욕을 해도 안 된다.

일곱째, 고기를 먹지 않는다.

여덟째, 죽은 동물을 만지거나 보지 않는다.

아홉째, 부정이 끼지 않도록 주의 한다.

열 번째, 바깥출입을 3일간 하지 않는다.

위의 내용은 선정된 제주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삼가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이 외에도 해산(解散)을 하였거나 해산 예정일이 임박해 오면 일주일 전에 마을을 떠나야 한다. 아이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시냇가에서 가재나 물고기를 잡는 것을 금한다. 제의 장소는 성황당이다. 성황당은 마을 입구에 있었으나, 故 조몽천씨의 꿈에 현몽하기를 “여기는 비가 와서 사태가 날 터이니 나를 산동성으로 옮겨 달라”고 해서 마을 뒷산인 백운산 아래에 옮겨 모셨다고 한다. 이후, 실제로 산사태가 나서 성황당이 묻힐 뻔했다고 한다.³⁴⁾

단오제의 준비는 청결함부터 시작이 된다. 제주 선정도 생기와 복덕과 청결함을 우선으로 선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당 또한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그런 다음에 2일전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리고, 회나무를 쫓아 부정함을 막는다. 요즈음은 제관들 집에만 치고, 당집에 금줄을 치지 않는다.³⁵⁾ 이는 당집이 외딴 곳에 있어서 부정 탈 염려가 없다고 여기기

둔는다.

34) 이한길, 「원주시 매지리 회촌마을 단오제에 있어서 신격의 정체」, 『한국무속학』 17집, 2008, 274쪽.

35) 이한길, 「원주시 매지리 회촌마을 단오제의 실상」, 『강원민속학』 22, 2008, 504쪽.

때문이다. 제기는 나무와 떡갈나무 잎만을 사용한다.³⁶⁾ 금줄은 원세끼로 꼬게 되는데 끝까지 다 꼬는 것이 회촌 마을 단오제의 특징이다. 흰 창호지를 20cm 정도로 잘라 한 팔 넓이로 세끼 사이사이에 꽂아 금줄을 완성한다.

제물은 소를 희생으로 올리는 경우, 돼지머리를 올리는 경우, 마을 제당에 제수를 올리는 경우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³⁷⁾ 매지리 회촌마을의 경우에는 소를 희생으로 올리는 경우이다. 소는 주로 수소를 사용하며, 잡아서 머리만 쓴다. 소뿔은 도끼로 쳐서 뿔을 빼고 삶는다. 소머리에 식칼을 꽂아 올린다. 소 값이 비싸지자 통돼지로 바꾸었다. 돼지는 검은돼지를 사용했으나 흑돼지가 귀하게 되자 흰돼지를 사용하게 되었다. 주둥이나 발목에 하얀 털이 박힌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털이 흰 것이든, 검은 것이든 상관없이 단색인 것을 쓴다. 털색이 섞인 것은 쓰지 않는다. 암수 구별은 하지 않았지만 암돼지를 선호했다. 통돼지는 당집이 있는 곳에서 잡았는데, 돼지 잡을 때 “깨액~~”소리가 서낭에게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제물로 올릴 때에도 식칼을 등에 꽂아놓았다. 칼날은 옆으로, 돼지의 머리는 북쪽으로 가게 하여 일자형으로 놓고, 돼지 다리를 안으로 모아서 꿰어얹히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다. 식칼을 꽂아 놓는 이유는 수저로 사용하라는 뜻이다.³⁸⁾

제물 준비 시에는 물건 값을 깎지 않고 깨끗한 것으로 준비하며, 남과 다투지 않는다. 제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밤, 대추, 꽃감, 산자, 다식, 약과, 향, 초, 포(북어 또는 명태포)8마리, 소간(회), 우두, 사고지 50장, 창호지 8장, 소고기 산적거리(2근), 탕거리(수육 반근), 떡살 2말(3되 3홉은 술 만들고, 나머지는 떡 만드는데 사용). 기타(마을 사람들 사용)-막걸리 1말, 음료수, 커피, 종이컵, 소독제, 철망(돼지 잡는데 사용) 등³⁹⁾

제물에서 북어는 8마리를 사용한다. 1마리는 떡시루 옆에 꽂고, 1마리는 탕을 끓일 때 소고기와 함께 사용한다. 6마리는 머리와 꼬리를 서로 엇갈리게 놓고, 소고기 산적을 올려놓는다. 떡은 백설기를 하되 예전에는 3말

36) 김의숙, 「원주군의 민속」, 『원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원도 원주군, 1994, 367쪽.

37) 김도현,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251쪽.

38) 이한길, 「원주시 매지리 회촌마을 단오제의 실상」, 『강원민속학』 22, 2008, 501쪽.

39) 이한길, 「원주시 매지리 회촌마을 단오제의 실상」, 『강원민속학』 22, 2008, 499쪽.

3되 3홉을 하였으나 현재는 1말 6되 7홉을 한다. 제관 1인은 떡을 하고, 1인은 제주(祭酒)를 담당한다. 단, 메(밥)와 나물, 어물은 올리지 않는다. 실은 한지와 당집 안에 걸어 두며, 종이는 소지용으로만 사용한다. 제주(祭酒)는 3되 3홉으로 한다. 이를 전에 제주를 담가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당집 좌측 삼신목(三神木) 밑에 구덩이를 파고 묻는다. 제물의 운반(運搬)은 5월 4일에 한다. 전에는 지게에 져 날랐으나 현재는 경운기를 이용하여 운반한다. 제물(祭物)의 손질은 과거에 당산에 올라가서 하였지만, 현재는 마을 회관에서 화주들이 손질한다. 제의 비용은 대동계 기금으로 충당하고, 약 80~100만 원 정도 든다.

단오제는 전날부터 시작된다. 5월 4일 아침 해뜨기 전에 무당들이 성황당에 모여서 성황굿을 한다. 굿을 마치면 무당을 앞세우고 산신당으로 올라간다. 산신당에서 강신굿을 한다. 5월 5일은 제주와 유사를 비롯하여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산신당에 가서 제를 올린다. 축문을 읽은 후,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제사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올린다.

회촌 마을의 성황당 안에는 남녀 서낭이 함께 있는 화상과 서낭신이 타고 다니던 말 그림이 걸려 있다. 남신(男神)은 호랑이를 거느리고 있는 위엄있는 모습으로 산신의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옆에 말이 있다는 것은 성황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산신과 성황신의 이중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⁰⁾ 위패에는 ‘白雲山檜村城隍神位’라고 되어 있다. 이 위패는 13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전에는 ‘白雲山城隍之神’이었는데 새로이 만들면서 ‘檜村’이란 마을 지명이 첨가되게 되었다. 위패의 명칭이 산신이나, 성황신이나는 문제와 두 신중에 어느 쪽이 남신이나, 여신이나는 논란은 계속 중이다. ‘白雲山城隍之神’ 일 경우는 백운산의 산신과 성황신이 같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白雲山檜村城隍神位’일 경우는 백운산 아래 회촌마을의 성황신이라는 구체적인 신격의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강원 지역의 보편성으로 본다면 성황신이 합당(合當)할 것이고, 회촌 마을이 산간마을이라는 지형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산신이 합당할 것이다. 이에 이한길은 백운산이 치악산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치악산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치악산은 고대로부터 국가의 중요 제향의 대상이었던 곳이고, 신격 또한 당연히 산신이었다. 백운산이 이 영

40) 원주시, 「민속문화재편」, 『원주시사』, 2000, 139쪽~140쪽.

향을 받았다면 당연히 산신이어야 한다. 또 신라 김유신 앞에 나타난 3명의 여성 산신을 비롯하여 고대의 설화에 등장하는 산신은 여성 산신이었다는 것이다. 남성 산신이 등장한 시기가 조선시대이므로 성적구별만으로 여성 산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⁴¹⁾

매지리 단오제의 축문⁴²⁾ 앞부분에 ‘白雲山城隍之神’으로 되어 있는바 오래전부터 백운산을 중심으로 성황을 모셨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白雲山檜村城隍神位’는 최근에 회촌마을 사람들이 새로이 모신 것이다.

매지리 단오제가 절정기였을 때는 1910년 경이다. 단오제는 3일간 계속 되었고, 교통이 불편했는데도 원주시내 사람들이 단오제를 구경하기 위해 왔다고 한다. 1970년대 미신타파운동(迷信打破運動)으로 인해 단오제는 쇠퇴(衰退)하였으며, 산신제로 축소되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매지리 단오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영서지역(嶺西地域)에서는 보기 드문 부부신이 함께 있다.
- 둘째, 통북어 6마리 위에 소고기 산적을 올려놓는다.
- 셋째, 제기는 나무나 떡갈나무 잎만 쓴다.
- 넷째, 밥, 나물, 어물은 제물로 쓰지 않는다.
- 다섯째, 금줄은 끝까지 다 끈다.
- 여섯째, 황토를 깔 때 회나무를 쫓아 놓는다.
- 일곱째, 통돼지 머리에 식칼을 꽂는다.

매지리 단오제는 과거 원주와 충주를 잇는 교통의 요지에 자리잡고 있어서 인근 지방에서 가장 유명했다. 원주 관내 여러 산신제는 치안사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회촌마을에 전승되고 있는 마을제의 역시 치악산 산신제의 맥락을 이어 받은 것으로

41) 이한길, 「원주시 매지리 회촌마을 단오제의 실상」, 『강원민속학』 22, 2008, 498쪽.

42) 매지리 단오제 축문

白雲山城隍之神 伏惟尊靈伏以

天開地闢 有神有人 人非其神 誰憑誰依 神在其間 變化莫測 人物之內 神爲最靈
尤靈城隍 白雲山下 聊有一村 人家卜策 是洞居民 仰侍尊靈 每年五月 吉日良辰
生氣選擇 齊誠仰訴 白雲山靈 下鑑赫赫 既蒙厚恩 神祈禍福 民賴神靈 神鑑民情
茲洞茲民 莫非神護 一年將盡 轉禍爲福 世態紛紛 國事混混 侵亂排陟 來賊防止
淨掃染疾 速逐諸魔 近滅災患 使我蒼生 家家蒼生 泰平安過 牛馬六畜 無養長就
百拜伏乞 名山神靈 洋洋降臨 格此明誠 謹以性將 犧牲酒果 庶幾城隍 歆格尚饗

보인다. 회촌마을의 주신은 백운산 산신령이라는 말이 있다. 마을 뒤로 휘감으면서 제천시 백운면으로 넘어가는 백운산 산자락이 원주시 치악산의 능선과 이어지는 곳에 위치한 마을이 회촌마을이다. 회촌마을의 서낭당이 있는 지역은 백운산 신령과 치악산 신령이 만나는 곳이라는 풍수설도 전해진다. 마을 공동체 신앙의 경우 제일은 주로 정월 초하루나 대보름을 기하여 지낸다. 날을 받아서 지낼 경우 4월이나 5월 중에 지내는 예가 많다. 이는 기우제(祈雨祭)적 의미와 관련된다고 보여진다.⁴³⁾ 제의는 생업 조건과 신앙이 무관하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이곳 성황당에는 영서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부부신이 함께 있다. 이러한 남녀신의 합위 현상은 음양의 결합을 통해서 빚어지는 생산과 풍요로 형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목계마을과 인접한 매지리 회촌마을은 교통의 요지로 상류지역과 차별이 된다. 매지리가 속한 원주는 교통의 요지로서 문물이 오고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자연히 다양한 문물과 문화들을 영위하게 되었다. 매지리 단오제는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원주지역의 대표적인 단오제로서 전승되어 왔다.

(3) 하류지역

1) 驪州 梨浦里 三神堂굿

경기도(京畿道) 驪州郡 금사면(金沙面) 이포(耳胞)마을에서는 3년에 한번씩 길일을 택해 ‘三神堂굿’을 행한다. 이포리가 자리한 여주지역(驪州地域)은 남한강의 하류로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13개의 나루가 있던 곳이다.⁴⁴⁾ 그 중에 이포나루는⁴⁵⁾ 조선의 4대 나루⁴⁶⁾ 중의 하나로 삼국시대부터 포구(浦口)의 역할을 하였다. 일제시대 때 가장

43) 김도현,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2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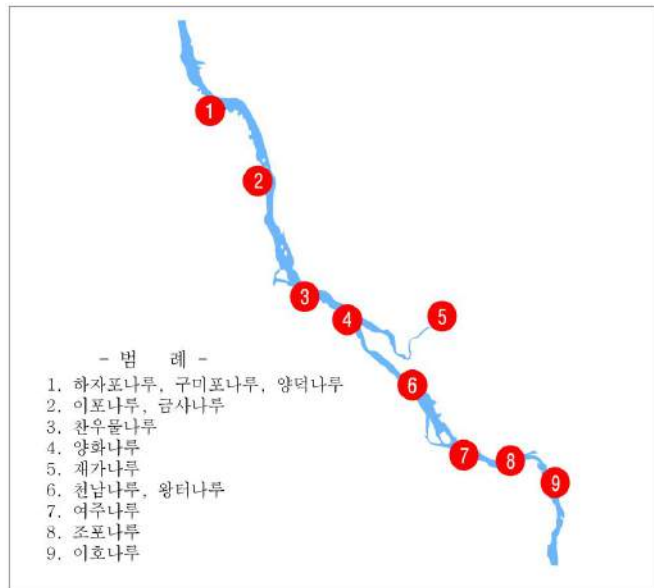
44) 백제 때에는 이포(梨浦)나루(배나루, 배개나루, 천양나루), 고려시대에는 이호나루, 조포나루, 여주나루, 조선시대에는 천남나루(사비나루), 왕터나루, 계가나루(사창골 나루), 양화나루(내양나루), 찬우물나루(한정나루), 금사나루(상자포나루, 위자진개나루), 하자포나루, 미포나루, 양덕나루가 있었다.

45) 이포나루는 고려 때 이호나루라고 하였다.

46) 조선의 4대 나루라 하면 서울의 마포나루, 광나루, 여주의 이포나루, 조포나루를 꼽는다.

활성화되었으며, 가장 최근까지 이용된 나루이기도 하다. 6·25전쟁 이후에도 대형 조선에서 차량까지 운송했다. 1991년 이포대교가 개통되면서 나루의 기능을 상실했다.

경기도의 도당굿은 주로 중·서부 지역에서 전승되어왔다.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는 동부지역에 속한다. 황인완은 이포리 ‘三神堂굿’을 조사하면서 경기도 동부지역(東部地域)에서도 도당굿의 성격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⁴⁷⁾



(표-2) 여주의 나루 분포 현황

이포리 삼신당굿은 3년에 한 번씩 제의를 행한다. 음력 3월과 4월 사이에 길일을 택해서 한다. 이포리 삼신당은 산신, 성황신, 용왕신을 모신다. 삼신당굿은 ‘三神堂굿’, ‘三仙堂굿’, ‘三僊堂굿’으로 불리고 있다. 마을의 풍농과 상업의 번창 및 무병을 기원하고 뱃길의 안전과 풍어(豊漁)를 기원한다. 삼신당의 신위는 주신(主神)이 산신이다. 그리고 좌우로 성황신과 용왕신이 좌정하고 있다. 산신은 호랑이를 상징하며 내륙 지방의 도당굿에 흔히 나타난다. 성황신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동해안 지역의 굿들에 많이 나타난다. 용왕신은 바닷가 마을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선들의

47) 황인완, 「驪州 梨浦里 ‘三神堂’굿의 性格」, 『한국무속학』 5집, 2002.

안전을 지켜주고 풍어를 기원한다. 강가 마을에서는 배의 안전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한다. 추렴은 마을 사람들이 쌀이나 돈으로 한다. 제물은 소머리, 통돼지, 각종(各種) 주과포(酒果脯)를 장만한다. 당제를 거르거나 굿과 관계 되는 사람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마을에 질병이 들고 우환이 생긴다고 믿고 있다.

내륙지방의 도당굿은 산신(山神)인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를 신위(神位)로 모시고 있다. '산제', '산치성'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부친 장말 도당굿, 구리 갈매울 도당굿, 수원 고색동 도당굿이 속한다. 모두 격년이나 2~3년마다 한 번씩 도당굿을 행한다. 하지만 수원 평동 별말 도당굿의 경우 신라 경순왕(김부대왕, 김지 대왕이라고도 함) 신위를 모시고 있다. 강화 외포리 꽃창굿 등 해안 지방의 도당굿은 용왕이나 임정업 장군 혹은 바다와 관련된 신위들을 모시고 있는 경우가 많다.

'三神堂굿'이 산신과 용왕신을 신위로 동시에 모시고 있는 것은 금사면 이포리가 경기 동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내륙 지방이면서도 동시에 남한강을 끼고 있다는 지역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3) '三神堂굿'과 일반적인 경기도 도당굿의 제의 진행

'三神堂굿'의 제의 진행	일반적인 경기도당굿의 제의 진행
<p>전날</p> <p>① 초부정</p> <p>② 당주굿 및 안택굿</p> <p>③ 당 開門 및 청소</p> <p>④ 굿상 진설</p>	<p>① 당주굿</p> <p>② 거리부정</p> <p>③ 부정청배</p> <p>④ 부정굿</p> <p>⑤ 당맞이</p>
<p>첫째날</p> <p>① 부정풀이</p> <p>② 당제</p> <p>③ 제석·불사거리</p> <p>④ 산신 도당거리</p> <p>⑤ 승전·장군·신장거리</p> <p>⑥ 호구거리·동자굿</p> <p>⑦ 대신거리</p>	<p>⑥ 돌돌이</p> <p>⑦ 장문잡기</p> <p>⑧ 시루청배</p> <p>⑨ 시루굿</p> <p>⑩ 터벌림</p> <p>⑪ 제석청배</p> <p>⑫ 제석굿</p> <p>⑬ 손굿</p>

<p>⑧ 꽃반 둘째날</p> <p>① 장군거리 ② 대감거리 ③ 도당군웅거리 ④ 선녀동자거리 ⑤ 도당할아버지·도당할머니 배송</p> <p>⑥ 조상거리 ⑦ 창부거리 ⑧ 성주거리 ⑨ 뒷전거리(성황 뒷풀이)</p>	<p>⑭ 군웅곳 ⑮ 당할머니곳 ⑯ 뒷전</p>
---	-----------------------------------

금사면(金沙面)은 옛날부터 金이 많이 나오는 곳이었다. 남한강과 관내 하천 등에서 사금이 채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리(上虎里)에는 전국 3대 금광 중 하나로 알려진 여수금산(麗水金山)의 금광이 있었다. 이 금광으로 인하여 이포리는 상업적으로 매우 번창했다고 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 때문에 옛날의 ‘三神堂곳’은 1주일 동안에 제행되었다고 한다. 옛날에는 ‘고창’이라고 했는데 삼현육각(三絃六角)의 풍악이 울리는 가운데 광대놀이, 줄타기, 씨름판 등 민속놀이가 벌어졌다. 인근 지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구경을 하느라고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삼신당곳은⁴⁸⁾ 마을곳이며, 제의 장소 또한 삼신당과 곳청, 당목 등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진행되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이포리 삼신당곳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 동부지역이면서도 도당곳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금광으로 인해 상업적으로 번창하였다.

셋째, 포구를 형성한 마을로 교통의 요지였다.

48) 황인완은 경기도당곳의 음악적 특징들은 도당곳을 진행하던 世襲巫家에서 전승되어온 판소리 중고제의 음률을 모체로 하고 있으며, 경기 시나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당곳의 장단은 매우 다양하며, 독특한 장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인완, 「驪州 이포리 ‘三神堂’곳의 성격」, 『한국무속학』 5집, 2002, 258쪽.

넷째, 천녕최씨와 관련이 있다.

다섯째, 산신과 용신을 동시에 모시고 있다는 것은 내륙지역이면서 남한강을 끼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포리(梨浦里)는 천녕최씨들의 집성촌이다. 600여 년 동안 ‘三神堂굿’은 최씨들의 유래와 함께 전승되어 왔다. 이포나루로 인한 교통의 편리성과 금광 산업으로 인해 상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지역이기도 하다. 경기도 중·서부에서 주로 행해지던 도당굿의 형태가 동부지역인 이포리에서 제 행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발견이며, 민속학적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남한강 유역의 별신제 양상은 다음 표와 같다.

(표-4) 남한강 유역 별신제의 전승 양상

지역	상류지역		중류지역		하류지역
	단양	제천	원주	충주	이포
제의 명칭	葛川別神祭	오티別神祭	백지리단오제	牧溪別神祭	삼신당굿
집례자	마을 원로와 무당	마을 원로	마을원로와 무당	마을 원로와 무당	마을 원로와 무당
연행주체	마을 주민	마을 주민	마을주민	상인	마을 주민
제의 방식	유식+무식+줄다리기, 적사대회	유식+무식+풍물	유식+무속식+풍물	유식+무식+난장(축문난독)	유식+무속식+풍물
대상신격	서낭(암서낭, 바깥서낭)	서낭신과 산신	성황신 2명, 말그림	서낭각시(富興堂) 산신, 용신	산신, 성황신, 용왕신
시기	9년, 정월 대보름	2년, 정월 대보름 (윤달이 드는 해나 홀수년도)	3년, 음력 5월 5일	3~4년에 한번, 4월 초파일 전후	3년, 음력3월~4월 택일
장소	암서낭당, 바깥서낭당	4개의 신당 (삼신당, 상당, 하당, 본당)	성황당	富興堂, 목계강변	삼신당, 굿형, 당목
제의	풍농과 마을	제액 방지,	풍농과 마을	상권 활성화 및	풍농, 상업번창,

목적	안녕	풍농과 가족의 번식	안녕	지역의 안녕 기원	뱃길 안전, 무병기원, 풍어기원
희생물	소머리 (돼지머리)	소머리(수돼지)	소머리 (수소)	소머리 (돼지머리)	소머리 (돼지머리)
내용	<p>홍수로 인해 인명피해가 있은 후, 9년마다 반드시 별신제를 제행함..</p> <p>남장이 형성되어 숲놀이, 줄다리기 등을 행하고, 술집과 노름판이 형성되었는데, 투전을 많이 함.</p> <p>9년에 한 번씩 3일에서 7일간 하였으나 최근에는 하루만 행함.</p>	<p>서낭당 중 가장 높은 상당에서 계시 (공수)를 받음.</p> <p>서낭신에게 ‘상당 (서낭당)에 뽕이 매장되어 있지 않습니까?’고 물었더니 신대가 흔들리지 않았다 하여 신이 답을 한 것이라 함.</p>	<p>제기는 떡갈나무잎과 나무편을 사용함. 풍복이 6마리위에 소고기 산적을 올림. 소머리나 풍돼지에 식칼을 꽂음(수저대용), 소는 수소만 고집함. 돼지는 털색깔이 섞이지 않은 것을 사용함.</p> <p>황토와 금줄을 친 후 회나무를 꽂음.</p>	<p>유교식으로 서낭당에서 제를 올리고, 서낭신을 모시고 강변으로 가서 무속인들이 뱃고사와 더불어 별신제를 지냄. 처음에는 무속적 제의였던 것이 1930년 동회에서 정월 9일 유교식동제로 지내기로 결의하여 별신제가 단절되었음. 우뚝문화재에서 시연되었다가 다시 마을 강변에서 유식과 무속이 혼합된 형태로 가을에 택일하여 별신제를 지냄.</p>	<p>천년 씨씨의 유래와 관련이 있음.</p> <p>문제의 해결은 무학대사가 함. 당제를 꺼르거나 부정한 일을 하면 마을에 질병이 들고 우환이 생김.</p> <p>내륙이면서도 남한강을 끼고 있다.</p> <p>금광이 있어서 상업적으로 번창하였음.</p>
규모	마을	마을	마을	인근지역주민 전체	마을

이상 남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별신제를 종합해 보면 상류지역은 산간마을이면서 봉화(烽火)나 화전(火田)이라는 마을의 특성을 지니고, 풍농과 마을의 무사 안녕을 기원해왔다. 중류지역인 원주 매지리단오제는 산간마을이면서도 교통의 요지라는 특성을 가지고 제행되어 왔다. 하류지역인 이포마을에서는 금광산업(金鑛産業)이 발달하면서 남한강을 끼고 상업의 활성화 및 뱃길의 안전과 마을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면서 제를 올렸었다. 제의 형태에 있어서 상류지역은 서낭제 형태이며, 경기도권역인 하류지역

은 도당굿 형태이며, 중류지역은 하류지역의 영향을 받아 도당굿 형태를 가미한 별신제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제의 명칭은 주로 별신제라고는 하나 원주 매지리의 경우는 단오제로 지낸다. 경기도 이포리의 경우는 삼신당굿이다. 그러나 명칭일 뿐 목계별신제 또한 경기도 지역의 영향을 받아 도당굿의 요소가 함유되어 있다.

2. 牧溪別神祭의 位相

충주시 엄정면 목계는 육로교통이 발전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내륙포구로 수운교통의 중심지였던 곳이다. 목계는 남한강 중류지역에 속하면서 상류와 하류를 연결해주는 교통로였으며, 정치·경제·문화가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할 수 있다.

목계별신제(牧溪別神祭)의 경우는 남한강을 끼고 형성된 마을이라고는 하지만 상류와 하류를 접한 지역으로 양쪽 모두가 습합(習合)되어 나타나지만, 강가 마을과 포구라는 자연환경적 조건과 부합되는 경기도 이포쪽의 영향을 받아 도당굿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농반상(半農半商)이어서인지 농사풍년과 상권활성화 및 지역의 안녕을 기원한다. 주된 목적은 상권 활성화인 것이다. 주최자 역시 대부분 마을주민들이 하지만, 목계의 경우는 상인들이 주최자가 된다. 이것이 남한강 유역의 별신제 중 목계별신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 하겠다.

목계별신제는 별신굿과 줄다리기, 난장의 세 요소가 결합된 축제이며, 영남과 경기, 강원 지역에 이르는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종합축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 인근의 가흥창과 함께 중원지역의 중요한 물류거점이었던 목계 포구는 예로부터 남북과 동서의 문화가 만나고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는 곳이었으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목계별신제이다.

남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별신제의 공통점은 첫째, 내륙지방에서 제행되는 제의라는 것, 둘째,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무당을 불러 진행한다는 것, 셋째, 유교식 제의와 무속식 제의가 병합되어 나타난다는 것, 넷째, 대상신격(對象神格)이 서낭신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상

류지역은 산간마을의 특성을 지닌 풍농과 마을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며, 풍농과 재액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지만, 하류지역은 상업의 활성화 및 지역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차별성이 나타난다.

별신제의 진행에 있어서는 모두 무당이 관여한다. 주도적으로 하느냐, 개입만 하느냐는 각 마을의 제의 양상에 달려 있다.⁴⁹⁾ 목계별신제의 경우는 혼합형이다. 신을 모시고 제의를 행하는 부분은 마을주민들이 담당하고 굿당에서 굿거리를 진행하는 부분은 무(巫)집단이 담당하는 방식이다.⁵⁰⁾ 별신제의 길놀이 연행은⁵¹⁾ 마을주민들과 풍물패와 무당들이 함께 신위만 모시고 움직이는 형태이다. 대상 신격 또한 모두 산간지역의 양상인 서낭신을 주신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포리의 경우는 산신이 주신이다. 제의 시기 또한 주로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갈천별신제의 경우는 9년에 한 번 지낸다. 이러한 지역별 별신제 양상은 목계별신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목계별신제만이 가진 개방적이면서도 종합축제적 제의로서의 위치를 자리매김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49) 마을주민 주도형은 마을주민이 주로 담당하는 형태로 무당은 신을 모시거나 보내는 정도만 담당한다. 단독형은 무당이 개입하지 않고, 마을주민들만으로 별신굿을 제행하는 형태이다. 혼합형은 무당과 마을주민이 비슷한 비중으로 연행을 담당하는 형태이다.

50) 조정현, 「별신굿과 문화권역」, 『공동체 지역문화와 문화권역』, 역사문화학회, 2009, 182쪽.

51) 길놀이형 별신제는 주로 내륙지역에서 나타나는데, 서낭기로 상징되는 신위를 모시고 순행을 하는 형태이다. 조정현, 「별신굿과 문화권역」, 『공동체 지역문화와 문화권역』, 역사문화학회, 2009, 182쪽.

III. 牧溪別神祭의 構成과 內容

목계별신제는 별신제의 일반적 속성을 지니면서도 일정한 차별성(差別性)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이 장에서는 목계별신제의 구체적 구성과 내용을 고찰·분석하고자 한다.

자연을 대상으로 천신이나 산천신과 같이 신에게 제를 올린 것은 부족 국가시대부터 있어왔다. 제정(祭政)의 권력자나 사회적으로 존중되는 인물이 무(巫)의 집례자가 되었다. 무(巫)의 대상은 자연신(天神·山川神)의 계통이었다. 후대에 내려오면서 역사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이 신격화(神格化)되면서 서민들의 관념 속에 무신으로서 숭앙된 것으로 본다.⁵²⁾ 천제의 전통을 이어받아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에 산천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왕실로서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였다. 부여에서는 ‘영고’라 하여⁵³⁾ 납월(臘月)에 하늘에 제를 올렸으며, 예(濊)에서는 무천(舞天)이라 하여 10월에 제를 올렸다. 이것이 오늘날 동제의 근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별신제는 동제의 일종이다. 동제는 주민들이 정성을 모아 마을을 수호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의이다. 이는 농촌과 어촌마을의 동제로 구분할 수 있다. 농촌마을의 동제는 액을 막고 풍농을 기원하는 제액(祭厄)·풍농 제의로서 당굿·도당굿·서낭굿·부군당굿·별신굿 등이 있다. 어촌마을의 동제는 액을 막고 풍어를 비는 제액·풍어 제의로서 풍어굿·용신굿·연신굿·서낭(船王)·풀이·별신굿 등이 있다.

별신제의 어원은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며,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① 신을 특별히 모신다.⁵⁴⁾

② ‘별’은 특별한 의미가 아니고 지명에서 흔히 쓰이는 서라별(徐羅伐)의 ‘별(野)’에 해당하는데, 평야지대의 야신(野神) 즉 별판의 ‘들

52) 홍일식, 「민간신앙/종교」, 『한국민속대관』 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80.

53) 『後漢書』 第85, 東夷傳條, ‘夫餘以臘月祭天大會 連日飲酒歌舞 名曰迎鼓’

54) 李能和, 「朝鮮巫俗考」, 『啓明』 19호, 啓明俱樂部, 1927, 46쪽. ; 이창식, 「마을축제 오티별신제」, 집문당, 2001, 65쪽.

신'인 '별신(野神)'에서 유래한다.⁵⁵⁾

- ③ '별', '별', '별'의 어원은 '밝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광명을 뜻하는 옛말 '븍'에 '신'을 합성했다.⁵⁶⁾
- ④ 별신굿은 특별신사(特別神祀)의 준말로써 고대 제천의식의 잔존으로 생각되는데, 그 구조는 제사와 굿놀이가 혼합된 것이다.⁵⁷⁾
- ⑤ '특별한 굿', 즉 무당이 제사하는 큰 규모의 마을굿을 뜻한다.⁵⁸⁾
- ⑥ '별나다', '특별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곧 별난 굿 또는 특별한 큰 굿을 의미한다.⁵⁹⁾
- ⑦ 배를 관할하는 선신(船神) 즉 '뱃신'에서 유래한다.⁶⁰⁾
- ⑧ 천연두의 두신(痘神)을 경외시(敬畏視)하여 특별한 내객손님을 뜻한다.⁶¹⁾
- ⑨ 별읍의 신을 섬기는 굿을 별신굿이라 하였다.⁶²⁾
- ⑩ 고개신 또는 거리신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마을의 길신을 '별신'이라고 했다.⁶³⁾
- ⑪ 고려시대 '별기은(別祈恩)'이라는 용어가 후대로 오면서 '별신굿'이라는 용어로 변모 되었다.⁶⁴⁾

위의 학설 중에 목계별신제는 ④,⑤,⑦의 성격이 강하다. ④는 고대 제천의식의 전통을 이어 받은 산신과 서낭신이 있으며, ⑤는 마을주민과 상인 그리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모인 대규모의 그룹이 형성된 가운데 별이는 마을굿이다. ⑦은 목계나루를 중심으로 왕래하는 배들의 안전과 상인들의 장사복을 위한 제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55) 이창식, 「마을축제 오티별신제」, 집문당, 2001, 65쪽.

56) 康龍權, 「釜山地方의 別神굿考」, 『문화인류학』 3, 한국문화인류학회, 1970, 79쪽~83쪽.

57) 李能和, 「朝鮮巫俗考」, 『啓明』 19호, 啓明俱樂部, 1927, 46. '名曰別神 蓋特別神祀之縮稱也'

58) 趙正賢, 「별신굿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 『한국무속학』 10집, 한국무속학회, 2005, 289쪽.

59) 李能和, 「朝鮮巫俗考」, 『啓明』 19호, 啓明俱樂部, 1927, 46쪽.

60) 이창식, 「마을축제 오티별신제」, 집문당, 2001, 65쪽.

61) 金泰坤, 「성주 信仰考」, 『後進社會問題 研究論文集』 2, 慶熙大 後進社會問題研究所, 1969. ; 徐廷範, 「言語가 사민에게 주는 影響」, 『사마니즘의 現代의 意味』, 원광대학교 민속학 연구소, 1973.

62) 임재해, 「하회별신굿에 나타난 옛 제의의 자취와 별읍의 전통」, 『안동문화』 14집,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1993, 219쪽.

63) 이창식, 「제천시 오티 별신제」, 제천문화원, 2001, 65쪽.

64) 李惠求, 「別祈恩考」, 『藝術論文集』 3, 藝術院, 1964.

별신제는⁶⁵⁾ 전국에 725곳이 조사된 바 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224곳, 전라남도 91곳, 부산 89곳, 충남 68곳, 제주 51곳, 서울 32곳, 경남 29곳, 전북 28곳, 인천 28곳, 경북 27곳, 강원도 27곳, 충북 14곳, 대전 14곳, 광주 2곳, 대구 1곳 등이다.

서울, 경기도, 인천지역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제의 명칭은 도당굿과 산제(산신제, 산신고사, 산고사), 우물고사(정제) 등이다.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성황제, 산신제, 천제, 풍어제 등이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경우는 용왕제, 별신제, 당산제 등이다.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의 경우는 용왕제, 별신제, 동제 등이다. 이로 볼 때 산간지역인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성황제가 주를 이루고,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는 도당굿이 가장 우세하다. 또한 바다와 인접한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서는 용왕제와 별신제가 제행(祭行)되어 왔음을 알 수가 있다.

목계별신제는 당고사-뱃고사-별신굿-난장문화의 순으로 진행되는 종합 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별신굿은 영신굿-오신굿-송신굿의 제의 절차를 따른다.

1. 당고사(堂告祀)

부흥당에서 지내는 당고사는 ‘서낭당 고사’, ‘산제’ 등으로도 불리고 있다. 대표적인 신격이 서낭신이다. ‘서낭’은 청동기시대부터 마을을 경계하고 수호하는 천신으로서 숭배해 왔다. 본래는 북방 기마민족(騎馬民族)이 수호하던 마을신이었던 고구려족이 남하하면서 마을을 방어하고 수호하는 신으로서 전래된 것이다.⁶⁶⁾ 성황제는 주로 강원 산간지역과 충청북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타 지역에서도 일부 전승되어지고 있다.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부흥당은 목계대교를 건너 목계마을 입구를 접어들면서 왼편으로 깎아지른 듯한 돌계단 위를 올라다보면 봉계산(鳳齊山) 중턱에 작고 소담한 1間の 건물이 보인다. 이곳이 부흥당(富興堂)이다. 예전에는 봉계산 아래 서울 방향쪽 삼거리 길가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한다.

65)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 신앙 上, 下』, 국립민속박물관, 2007.

66) 이창식, 「마을축제 오티별신제」, 집문당, 2001, 62쪽.

1968년 국도 확장공사와 목계대교 가설 공사로 인하여 당을 없애고, 1972년 현재의 위치로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⁶⁷⁾

목계마을에서는 평년에 동제를 지내는데 이를 ‘부흥당 당고사’라고 한다.⁶⁸⁾ 장기덕은⁶⁹⁾ 부흥당을 예전에는

‘산제당(山祭堂)’이라 하였다고 주장했다. 부흥당(富興堂)은 ‘봉지산 중턱에 산신당이 있으며, 매년 정월에 이곳에서 목계대동계를 중심으로 산신제를 올린다’

고 기록되어 있다.⁷⁰⁾ 김정열은

“鳳齊山 혹은 富興山이라고도 하는데 忠州南山城과 長湖院을 잇는 烽火를 올리던 곳으로 丙子胡亂當時는 個峰山으로 불려졌었다.”⁷¹⁾

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봉지산’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다. ‘봉제산’의 오류이며, 마을 주민들끼리 호칭하는 언어일 것이라 추정된다. 장기덕이 ‘산제당’이라 한 것은 ‘부흥당’을 일컫는 것이 아닌 따로 ‘산제당’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된다.⁷²⁾

부흥당 내부에는 서낭도를 중앙에 봉안하고, 좌측면에 용신, 우측면에 산신을 모시고 있다.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모두 좌측에 산신, 우측에 용신이라 기술하고 있다. 이는 부흥당을 옮기면서 신도를 봉안하는 과정에서 생긴 현상일 것이다. 물론 부흥당을 옮기기 전에는 지금과 다르다. 정면에 신도를 나란히 모셨고 좌측에 산신, 중앙에 서낭신, 우측에 용신을 모시고 있었다고 한다. ⁷³⁾ 서낭각시도는 현재 봉안된 것이 4번째 화상이

67) 목계리 주민:김현해, 강광남, 변종근, 김정열 제보

68) 김정열, 「목계의 정신과 문화」, 목계향우회, 2002, 50. 김정열은 ‘해마다 正月大보름엔 堂告祀를 지냈으며, 이는 옛날에 山이 깊어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을 해치는 일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황당에 堂告祀(堂祭)를 지내는 것이다.’라고 했다. ; 어경선, 「마을신앙편-목계의 동제」, 『충주의 향토사』, 2001. 170. 어경선은 ‘무당들을 불러 대규모로 거행되었는데 상경기(商景氣)가 침체되어 경비엄출이 어렵게 되자 부락회의를 열어 유교식으로 간략하게 제사하자고 결의한 후 지금까지 일반 서낭제처럼 규모가 작아졌다고 했다.’

69) 장기덕, 「충원향토기」 2, 예성문화연구회, 1997.

70) 김영진, 「牧溪別神祭」, 『목계별신제 학술대회』, 충주문화원·충주문화원·충원목계문화보존회, 2007, 83쪽.

71) 김정열, 「목계의 정신과 문화」, 목계향우회, 2002, 50쪽. “鳳齊山 혹은 富興山이라고도 하는데 忠州南山城과 長湖院을 잇는 烽火를 올리던 곳으로 丙子胡亂當時는 個峰山으로 불려졌었다.”

72)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옛날에는 산제당과 서낭당이 따로 있었다고 한다. 옮기는 과정에서 합쳐져서 ‘부흥당’이라 하여 산신, 서낭각시, 용신을 함께 모셨다고 한다.

다. 첫 번째 서낭신은⁷⁴⁾ 두신(痘神)인 별상마누라의 모습과 흡사하다. 별상마누라는 밖에서 들어오는 병을 막아주는 신으로 별상신의 부인이다.⁷⁵⁾ 두 번째 서낭신은⁷⁶⁾ 1997년 당시 부흥당 내부 사진으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흑백이어서 의복의 색상은 알 수 없다. 치마·저고리를 입고, 왼손을 오른손 위에 얹고 정갈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었으며, 쪽진 머리에 비녀를 꽂았다. 정숙한 부인 같기도 하고, 젊은 삼신할미 같기도 한 모습이다. 세 번째 서낭신은⁷⁷⁾ 2000년에 새로 모셨던 화상이다. 하얀 소복차림으로 정갈하게 좌정을 하고 있었고, 쪽진 머리에는 비녀를 꽂고 고깔을 썼다. 목에는 염주를 둘렀고, 오른손에는 염주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네 번째는 현재 모시고 있는 서낭신으로 쪽진 머리에 긴 비녀를 꽂았다. 꽃무늬를 수놓은 붉은 저고리에 감귤색 빛 진노랑의 주름치마를 입었다. 치마단 쪽으로 담장무늬를 표현했다. 왼손을 오른손 위에 얹어 공수를 한 모습이다. 다리는 어깨넓이만큼 벌리고 양발을 바깥쪽으로 벌리고 서있다. 하얀 버선을 신었으며, 신발은 나막신처럼 생겼으며 바닥에 앞뒤로 굽이 있다. 환한 미소를 연상하듯 살짝 벌리고 있는 모습과 부처님처럼 큰 귀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해결해 줄 것만 같다.

산신은⁷⁸⁾ 기본 자료에서 언급된 모습으로 보아 현재 3번째 신도(神圖)일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산신은 머리는 상투를 틀고 도포 비슷한 의복을 하고 앞에는 줄무늬 선명한 호랑이 한 마리가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며 포효(咆哮)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형상이다. 머리 뒤로는 일월도(日月圖)가 있고 왼쪽 뒤편에 시동(侍童)이 무언가를 들고 있다. 세 번째 산신은 머리를 뒤로하고 하얀 수염과 수북한 눈썹에

73) 충주문화원, 「마을신앙편」, 『충주의 향토사』, 2001. 177쪽. 1997년 당시 부흥당 내부의 사진으로 산신, 서낭신, 용신이 나란히 걸려 있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74) 충주시, 『충주시지』 中, 충주시, 2001, 51쪽. 부흥사 서낭각지도 사진.

75)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 「한국의 무신」,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 2004, 114쪽.

76) 충주문화원, 「마을신앙편」, 『충주의 향토사』, 2001. 177쪽.

77) 충주문화원, 「마을신앙 편」, 『충주의향토사』, 충주문화원, 2001, 174쪽. ; 충주문화원, 「목계별신제편」, 『충주의 향토사』, 충주문화원, 2004, 70쪽.

78) 충주문화원, 「목계별신제편」, 『충주의 향토사』, 충주문화원, 2004, 70쪽. ; 어경선, 「충주의 전통 문화 지킴이, 목계 마을」, 『삶의 터전, 마을이야기』, 예성문화연구회, 2008, 138쪽. ; “산신은 흰색 도포를 입고 있으며, 오른쪽 어깨부터 왼쪽 발목까지 붉은 천을 드리우고 있다. 머리에는 작은 모자를 쓰고 있다. 전체적으로 노승을 연상케 한다. 기암과 폭포와 꽃가지가 드리워진 가운데, 산신의 옆에 꼬리를 치켜 든 호신이 입을 벌리고 있다. 호신은 노승 아래 풀밭에서 포효하고 있는데, 이빨과 발톱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으며, 꼬리를 위로 치켜올린 채 네 발을 한 곳에 모아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한 기세다.”

서 도인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가슴까지 내려오는 수염을 오른손으로 쓰다듬고 왼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앉아 있다. 호랑이는 꼬리를 치켜세우고 무엇인가를 경계하는 듯이 입을 벌리며 서 있다. 뒤에는 시동이 과일 두 개를 그릇에 담아 서 있다.

용신⁷⁹⁾ 또한 첫 번째 화상은 기존자료의 설명과 같을 것이다. 두 번째 용신은 머리에는 익선관을 쓰고 앞에는 용이 있으며, 천상계에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세 번째 용신은 머리에 익선관을 쓰고 양쪽으로 치켜올린 수북한 눈썹과 팔자 콧수염, 더부룩한 수염을 양손으로 쓰다듬는 모습이다. 앞에는 용 두 마리가 마주하고 있고, 오른쪽 뒤편에 한 시동이 서 있다.

당고사⁸⁰⁾의 제일은 예전에는 1월 5일부터 시작하였다. 당골무당이 광대(廣大)와 악사(樂士)를 데리고 와서 광대놀이를 하여 돈을 벌고, 9일에는 각 가정을 돌며 축원을 해주고 비용을 마련하였다. 9일날 저녁에는 제관(祭官)의 집에서 안반굿(案盤굿)을 하였다. 10일 아침부터 부흥당에서 제를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별신이 드는 해에 지내는 제일이다. 평소에는 정월 9일 저녁에 유교식 제의 절차에 의해 지낸다.

제주의 선정은 생기와 복덕에 맞는 원로 중에 선택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이장이 맡기도 하였다.

제물은 돼지머리, 삼색실과, 제주, 떡을 진설한다. 예전에는 소머리를 썼다고 한다.

제의 순서는 분향(焚香)→헌작(獻爵)→독축(讀祝)→대동소지(大同燒紙)→각호소지(各戶燒紙)를 올리는데 일반 서낭제와 대동소이하다. 축문은 수시로 지어 읽는다.⁸¹⁾

祝文은 제를 지낼 때마다 새로 써서 읽은 후 소지를 한다. 축문은 신의

79) 충주문화원, 「목계별신제편」, 『충주의 향토사』, 충주문화원, 2004, 70쪽. ; 어경선, 「충주의 전통 문화 지킴이, 목계 마을」, 『삶의 터전, 마을이야기』, 예성문화연구회, 2008, 138.

“용신은 자체로서 용왕의 이미지를 한껏 자아내고 있다. 머리에는 翼善冠을 쓰고 있으며, 곤룡포(袞龍袍)와 흡사한 두루마기를 걸쳤는데 양어깨와 가슴 부근에는 흔히 ‘보(補)’라고 일컫는 금실로 수놓은 五爪龍을 붙여놓았다. 외부의 배경은 선계를 방불케 하고 있다. 멀리는 보일 듯 말 듯 하게 암벽이 드리워져 있으며, 가까이에는 파도가 치는 가운데 두 마리의 용이 용신 주위를 두르고 있다.”

80) 충주문화원, 「마을신앙편」, 『충주의 향토사』, 2001. 170쪽. '당굿'이라고 표기하였다. 당고사 지내는 날은 강추위가 와서 '당굿추위'라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81) 충주문화원, 「마을신앙편」, 『충주의 향토사』, 2001. 170쪽.

은혜에 대한 감사와 마을의 안녕 및 각 집안의 번영, 풍년, 재앙 소멸 등의 내용을 기원하는 내용이다. 내용면에서 길기도 하고 짧기도 했다가 한 구절씩 빼먹기도 한다. 세월의 변화에 발맞추어 한문으로 된 축문이 한글로 바뀌어 사용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해마다 다르지만 기원의 목적은 같다.

제관의 선출은 개방을 지향했던 것으로 보아 엄격하지 않은 것 같다. 즉, 한 해 동안 특별하게 부정한 일이 없으면 제관은 관례적으로 마을 최고 원로와 이장이 맡는다. 제물은 소머리(돼지머리), 시루떡, 삼색실과(밤, 대추, 꽃감), 과일(사과, 배), 수수떡, 포, 통북어, 두부, 제주(막걸리), 정화수 등을 준비한다. 수수떡은 부정을 막기 위해 제를 마치고 제장 주변에 뿌린다. 통북어는 시루 양쪽에 꿰고, 시루떡 중간에 정화수를 올려 놓는다.

제의 절차는 분향(焚香)-초헌례(初獻禮)-독축(讀祝)-아헌례(亞獻禮)-종헌례(終獻禮)-소지(燒紙) 순으로 진행된다. 당고사가 끝나면 부흥당 신들을 신장대에 모시고, 풍악대를 앞세워 뱃고사를 위하여 목계강변으로 이동한다.

2. 뱃고사 (龍神祭)

뱃고사는⁸²⁾ 물의 신인 용신에게 배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의이다. 주로 배 안에서 지낸다. 해안 지역에서는⁸³⁾ 배를 소유하고 있는 가정에서 배의 안전과 풍어를 관장하는 뱃서낭을 모셔놓고 지낸다. 강을 끼고 있는 마을에서도 뱃고사를 지내게 되는데, 어느 곳이든 물 속에는 신이 있으며 그 신격의 상징은 용이라는 믿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용

82) 「디지털 강릉문화대전」, 액매기제, 용신제. 해안지역에서는 액매기라 하여 ‘액매기제’를 지낸다. 액매기 풍습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민주면(閔周冕)이 편찬한 『동경잡기(東京雜記)』 상원조에는 “용왕제를 하고 종이에 밥을 싸서 밤중에 우물에 던진다는 기록이 보인다.” 1921년 최영년이 저술한 『해동죽지(海東竹枝)』에는 살어식(撒魚食)이라 하여 “옛 풍속에 정월 보름날에 조밥을 우물 샘에 살포하여 고기더러 먹으라는 뜻을 붙인다.” 이것을 어부식(魚付食)이라고도 한다.

83)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 신앙 上, 下』, 국립민속박물관, 2007. 전국 별신제 분포 상황 통계에 의하면부산,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이며, 남한강을 끼고 있는 목계 지역에서도 용신제인 뱃고사를 지낸다.

신제’, ‘용왕제’라고도 한다. 제의 시기는 대체로 정월대보름에 정기적으로 제를 올린다. 추석이나 처음으로 고기 잡으러 나갈 때도 뱃고사를 지낸다. 용골을 앓힐 때도 뱃고사를 지내게 되는데 선주와 도복수가 배의 건조작업이 순조롭기를 기원하며 유교식 제의로서 제를 올린다. 진수할 때의 뱃고사는 무당굿의 형태가 일반적이다.⁸⁴⁾

목계의 뱃고사는 무사운항을 위해 정기적으로 정월 보름에 뱃사람들과 상인들의 주도하에 제를 지낸다. 그러나 부흥당 앞을 지나는 배들은 수시로 간략하나마 제를 올렸다고 전한다.

목계에서 한양이나 가흥쪽으로 배를 운행하다보면 소태면 양촌리와 가흥리 사이에 ‘막호레기 여울이⁸⁵⁾ 있다. 이곳은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 여울이었다. 또 강 가운데 수많은 암석들이 산재해 있어서 배들이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했다. 막희락탄(莫喜樂灘)·고유수탄(固有愁灘)이라⁸⁶⁾ 표현한다. 이곳에서 한 해에도 수십 척의 배가 파손이 되고 인명이나 재산까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 이를 위해 끝페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생겨났다고 한다.⁸⁷⁾ 끝페들은 물길을 잘 알기 때문에 배를 안전하게 인도해주고 돈을 받았다고 한다. 강을 중심으로 여울이 심한 곳에 하나의 전문인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막호레기 여울에서의 돈벌이가 가장 좋았다고 한다.

1930년대 도로와 열차가 개통되고, 1973년 목계교가 가설되었다. 이로 인해 배의 운행이 줄어들면서 뱃고사는 시들해졌고, 급기야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남한강의 기우제는 용신(龍神)과 수신(水神)을 믿는 민속신앙에서 나왔으나, 조선전기까지는 큰 나루터에서 국행제(國行祭)의 의미까지 부여되었다. 이 부정화 방법은 대체로 수신(水神)인 용이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 강 주변의 용천·용소·용담 등을 더럽혀 ‘득죄절우(得罪乞雨)’하는 방법이다.⁸⁸⁾

84) 충주문화원, 「목계별신제편」, 『충주의 향토사』, 충주문화원, 2004, 76쪽.

85) 막호레기의 여울에 대해서 『大東地志』에는 “莫喜樂灘 西北三十里荷沼之下 固有愁灘 西北六十里 禹至灘 固有愁之次”, 『輿地圖書』에는 “莫喜樂 在灘西三十里山溪津下流 固有愁灘 在縣北六十里德恩津下流 禹至潭灘 在縣西六十五里固有愁灘下流” 기록되어 있다. ; 김현길 편저, 『大東地志』, 『忠淸北道輿地集成』, 충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4, 251쪽. ; 김현길 편저, 『輿地圖書』, 『忠淸北道輿地集成』, 충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4, 170쪽.

86) 막희락탄과 고유수탄은 같은 여울이 아님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87) 김경열, 남, 1941년생,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평년에 지내는 목계 뱃고사는 휴먼기라고 할 수 있는 겨울철에 지낸다. 선박의 운행을 하지 않는 시기에 배를 나루터에 정박해 놓고 지내는 것이다. 제일은 정월 14일이다. 제관의 선출은 따로 없으며, 선주나 뱃사람들이 직접 담당하였다. 대상신은 부홍당 서낭신이다.

제의 준비는 제일 보름 전부터 나루터에 금줄을 치고, 이곳을 지나가는 뱃사람들에게 경비를 각출하여 비용을 마련한다. 제물은 보통 돼지머리, 삼색실과, 통복어, 과일(사과, 배), 제주(막걸리) 등이며, 마련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양과 질이 달랐다.

제의 참여는 배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모두이다. 유교식 제의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의례를 마친 후 약간의 음식을 떼어 놓는다. 준비나 제의 절차에서 비교적 간단한 제의지만, 뱃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생명이나 생업과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신에게 지극한 정성을 올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히 일어났다.

별신제 때 지내는 뱃고사는 당고사에 이어 진행되는 제의로서 무당이 집례를 하고, 당고사를 지내던 제관들이 뱃고사에서도 제관이 되어 제를 모신다. 당고사에서 모신 부홍당 신들을 모시고 나루터에 다다르면, 신장대를 가지고 물가 쪽으로 가서 주술을 하면서 용신을 영접한다. 그리고는 신들을 모시고 배 위로 올라가 제의를 진행한다. 제관들도 함께 올라가 유교식 제의 절차에 의해 제를 지낸다. 제를 마치고 별신굿을 하기 위해 마련된 제장으로 이동한다.

3. 별신제(別神祭)

2007년 국립민속박물관에서⁸⁹⁾ 조사한 별신제의 명칭은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는 도당굿이 가장 우세하다.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경우는 성황제, 전라남도과 전라북도의 경우는 용왕제, 경상북도·경상남도·부산의 경우는 용왕제이다. 남한강을 중심으로 볼 때 상류지역인 강원도는 성황제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중류지역 또한 성황제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하류지역인 경기도 지역은 도당굿이란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88) 이창식, 「충북의 민속문화」, 푸른세상, 2003, 21쪽~22쪽.

89)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 신앙 上, 下』, 국립민속박물관, 2007.

파악된다. 천제의 전통을 이어받아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에 산천에 제사를 지내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자마자 행정구역의 정비와 아울러 사전(祀典)을 서둘러 정비한 것으로 보아 목계 별신제의 기원은 늦어도 고려시대부터 전승되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수로 교통의 중심지였던 목계나루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면서 교통뿐만 아니라 경제의 중심지 역할도 함께 했다. 여기에는 나라의 조창인 가흥창이 있었고, 국가의 사고(史庫)인 충주사가 있었다. 전국 수로 교통체계의 분기점으로서 국가의 시설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급관리부터 서민들까지 다양한 계층들이 왕래를 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배를 이용하여 왕래가 이루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각종 물류교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뱃길이라는 것이 항상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곳곳에 여울이 있었는데 강바닥이 얕은가 하면 물살이 세거나 암석들이 산재해 있어 배들이 잘못 지나치다가는 파손이 되거나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뱃사람들에게는 배의 안전을 위해 자연신에게 기원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한 현상들은 목계나루 뿐만 아니라 남한강을 이용하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모두에게 절실한 과제였을 것이다. 이에 목계별신제는 목계나루의 활성화에 비례하여 전승될 수 있었다고 본다.

별신굿은 동계의 일종으로 농촌마을에서는 액을 막고 풍농을 기원하는 굿으로 당굿·도당굿·서낭굿·부군당굿·별신굿 등이 있다. 어촌마을에서는 액을 막고 풍어를 비는 굿으로 풍어굿·용신굿·연신굿·서낭(船王)풀이·별신굿 등이 있다. 목계리의 경우는 농촌마을이면서 강을 끼고 있는 강가마을이다. 이에 액을 막고 풍농을 기원하지만, 배가 다니는 물길로 인해 배의 안전과 장사꾼들의 왕래로 인해 장삿복까지 추가하여 기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별신굿은 무당이 집도하는 마을 굿의 형태이며, 별신제는 유교식제의와 무속식 제의가 결합되는 제의 양상을 보인다. 또한 난장문화가 결합되어 대단위 규모의 별신제로서의 제의 양상을 띤다. 목계별신제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⁹⁰⁾

90) 李能和, 「朝鮮巫俗考」, 『啓明』 19호, 啓明俱樂部, 1927, 46쪽.

“별신제는 각 지역의 시장이나 도회에서 봄과 여름에 교차되는 시기에 3일이나 5일의 정기간을 택해서 서낭신에게 드리는 신사(神祀)를 말한다. 이러한 특별신사(特別神祀)를 ‘별신’이

별신굿은 서낭굿이면서 마을 축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관에서도 제지하지 않을 정도로 별신굿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계별신제는 목계나루를 중심으로 오가는 배들의 무사 운항과 안전을 기원한다. 또 목계마을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며, 장사꾼들의 장시번영을 기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제의였다. 목계별신제는 당고사-뱃고사-별신굿-난장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별신굿은 영신굿(迎神굿)-오신굿(娛神굿)-송신굿(送神굿)의 제의 절차를 따른다. 이에 따른 난장문화들이 연회되면서 종합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별신제는 주로 3~4년을 주기로 행해졌으며, 제일이 정해지면 무당을 부르게 되는데 인근 무당이 대규모 연합하여 와서 굿판을 벌였다고 한다. 부흥당에서 신을 영접하여 제의를 올리고, 강변으로 모시고 가서 용신을 영접하여 뱃고사를 지낸 다음, 강변에 마련된 별신제장으로 신을 모시고 가서 좌정한다. 그리고 영신굿을 한다. 제의 절차는 당고사와 뱃고사와 마찬가지로 유교식 제의 절차를 따른다. 이때부터 무당들의 역할이 돋보인다.⁹¹⁾

1) 영신굿(迎神굿)

영신굿은 부흥당의 신을 신장대에 모시고 별신 제장에 와서 영접(迎接)하는 것이다. 영신굿은 다음의 제의가 차례로 진행된다. 제관은 별신제를 지내는 해에 대동회에서 초헌관 1명, 아헌관 1명, 종헌관 1명, 축관 1명을 선출했으며, 유사는 동네 이장이 맡아서 했다. 현재는 목계문화보존회 총무가 맡아서 한다. 제물은 소머리, 삼색실과, 시루팥떡, 백설기, 수수떡, 통북어, 제주(막걸리), 과일 등을 준비한다. 예전에는 이장과 부서기가 부흥당에 올라가 직접 제주(조라술)를 빚었다고 한다.

제의 절차는 유교식의 절차에 따른다. 진행은 물론 무당이 담당하였다. 순서는 분향→초헌례→독축→아헌례→종헌례→소지 순이다. 제를 마치면

라고 한다. 특히 이때에는 사람들이 모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를 하고 도박을 자행하며 난장을 벌여도 관에서 이를 막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제사 과정의 특징은 마을 신목이 있는 곳이나 대목(大木)을 세우고 신위(神位)앞에 제물을 진설하고 무격(巫覡)으로 하여금 가무로서 즐겁게 모신다는 사실이다.”

91) 2007년부터 목계별신제를 직접 현장 조사한 자료이다.

수수떡을 부흥당 주변에 뿌리고 음복을 한다. 부흥당에서 영신굿을 지낼 때 오른쪽에 큰바위 앞과 왼쪽 뒤편에도 제물을 진설한다.

2) 오신굿

오신굿(娛神굿)은⁹²⁾ 부흥당의 신들을 모셔놓고 즐겁게 해드리는 곳이다. 마을의 안녕을 무의 축원으로써 기원하는 의식이다. 오신굿의 절차는 서낭거리→산신거리→팔선무→불사거리→대감굿→작두굿(장군놀이) 순으로 제행된다.⁹³⁾

3) 송신굿

송신굿은 모든 제의가 끝나면 신(神)을 송별하게 되는 의식이다. 별신제장에 좌정하고 있던 부흥당 신들을 본래 자리인 부흥당으로 모시는 의식인 것이다. 이로써 별신굿의 행사는 마무리가 된다. 목계줄다리기, 남사당패놀이, 박첨지놀이, 제머리마빡과 백중놀이 등이 연희된다. 이들 놀이는 별신굿의 중간 중간에도 연희가 된다.

4. 牧溪別神祭에 부수되는 난장문화

별신제에 부수되는 난장문화에는 목계줄다리기, 남사당패놀이, 박첨지놀이, 제머리마빡 인형놀이 등이 연희되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92) 충주문화원, 「목계별신제편」, 『충주의 향토사』, 충주문화원, 2004, 87쪽.

93) 2008년 목계별신제를 직접 보고 조사하였다. 서낭거리는 부흥당 서낭신에게 장사꾼들의 액을 물리쳐 달라는 뜻을 축원한다. 산신거리는 산신에게 자손의 점지와 자손의 출세, 한 가정의 복락 등을 축원한다. 팔선무는 목계를 수호하고 있는 여덟신에게 지역의 안녕을 위해 축원한다. 불사거리는 세존불사(世尊佛師), 삼신(三神), 제석신(帝釋神), 칠성(七星) 등에게 축원한다. 세존불사에게는 현실의 고난이 해결되기를, 삼신과 제석신에게는 자손의 번영과 재수를, 칠성에게는 병역의 驅逐에 따른 수명장수를 각기 기원한다. 대감굿은 열 두 대감신에게 자손의 출세를 비롯하여 복락을 기원한다. 작두굿(장군놀이)은 작두에 오름으로써 잡귀나 잡신을 驅逐하는 곳거리다. 실제로 원형의 목계별신제에서 남장군과 여장군이 작두를 탔다고 한다.

부수되는 난장문화도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예전에는 일반 대중들이 보고 즐기는 놀이문화였다면, 현대에는 직접 참여하여 체험하는 놀이 문화들로⁹⁴⁾ 그 종목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에 자료로서만 남은 전승문화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1) 게(蟹)줄다리기

줄다리기는 줄을 마주 잡아 당겨 승부를 겨루는 놀이다. 한해의 길흉을 점치고 풍년이나 풍어를 기원하는 뜻에서 행해진다.

줄다리기의 줄은 외줄과 게(기)줄로 구분할 수 있다. 외줄은 현재 성행하고 있는 말 그대로의 한 줄로 된 줄을 말하며, 게(기)줄은 굵은 원줄에 가지가 뻗은 것 같은 종줄들이 수없이 늘어져 있다. 종줄은 ‘기줄’, ‘게줄’, 지네줄’이라고도 한다. 또 외줄과 쌍줄로 나누어 보면 외줄은 성의 구분이 없다. 그러나 쌍줄은 암줄과 숫줄로 구분된다. 이 경우는 암줄에 숫줄을 끼워 넣어 비너목을 지른다.

목계의 경우는 쌍줄이며 종줄이 있기 때문에 ‘기줄다리기’ 또는 ‘게줄다리기’라고 한다. 마을 자체 내에서 즐기던 줄다리기는 ‘애기줄다리기’, 청년줄다리기가 있었다. 또 3년마다 행했던 ‘게줄다리기’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의 행사였다. 줄다리기는 대동성이 우선 대두되지만, 줄다리기로써 그 해의 풍흉을 점쳤다는 것은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화재를 막고 터를 다진다는 의미를 가진다. 목계줄다리기의 경우는 동편과 서편이라는 음양 겨루기를 통해 주술적 제의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는 ‘충주목의 읍촌’이라 했지만,⁹⁵⁾ 구체적인 마을명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창식은 남한강 수계 지역인 목계에서도 줄다리를 정월 대보름에 했으며, ‘충주목의 읍촌’이란 목계와 부합

94) 2006년~2008년 까지 목계별신제의 부대행사로 황포돛배 운행 시연, 세계민속공연, 남진콘서트, 송편빚기 대회, 뗏목시연, 나무곤충만들기, 천연염색체험, 진품명품, 즉석경매 등이 연회되었다.

95) 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충주지역의 줄다리에 대해 다음과 기록하고 있다.
‘今湖西忠州牧之邑村上元有挽索戲爲勝負以占其歲之豐凶’

되므로 『五洲衍文長箋散稿』의 기록은 목계의 줄다리기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목계줄다리기에 대한 김춘식의 자료에서는⁹⁶⁾ 목계 줄다리가 3년을 주기로 2월 말경에서 3월 초순 사이에 행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음력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서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인근의 각 동리뿐만 아니라 충주·원주·장호원 등지에서 농악기(農樂旗)를 앞세운 수만 여 명의 인파가 몰려 대성황을 이루었다. 목계 줄다리는 1950년 전까지 행해졌으나⁹⁷⁾ 단절되다가 충주문화원 주최로 우륵문화제에서 별신굿과 함께 재현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목계문화보존회의 주최로서 별신제 행사 때 행해진다.

줄의 준비는 짚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된다. 농한기에 모은 짚으로 새끼줄을 꼰다. 짚의 양은 약 800토매가 필요하다고 한다. 짚은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 짚을 마련한다. 짚이 모자랄 경우는 인근 동네에서 몰래 가져오거나 풍물을 쳐서 비용을 마련하여 짚을 구매하기도 했다. 줄은 원줄(상속회)만 먼저 만들고, 종줄(귀줄, 개줄, 기줄, 메기수염)은 강변에서 꼬았다. 암줄과 숫줄을 연결해 주는 비너목은 동편에서 마련한다. 재질은 소나무나 향나무를 사용한다. 줄다리기 장소는 목계 강변으로 예전에는 밭이었으나 1936년 병자년 홍수로 인해 모래밭이 되었다. 이곳을 ‘줄터’라 한다.

줄은 한쪽 길이가 약 70~80m 가량이 되는 쌍줄이었다. 용머리의 길이는 2m가 넘고 용목은 약 50cm 가량 되었으며, 종줄의 굵기는 5cm쯤 된다. 원줄에 종줄을 끼워 한 가닥씩 뽕게 되므로 뒤로 갈수록 원줄이 가늘어진다.

편은 동편과 서편으로 나뉜다. ‘東男西女’의 엄격한 인식이 있었기에 동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여겼다. 풍년은 남녀의 성으로 보았을 때 여성을 상징한다. 그런데도 남성을 상징하는 동편이 이겨야 한다는 것은 이 지역에 유교적 사상이 짙게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편장의 선출은 각 편에서 2~3명으로 한다. 이들 중에 도편장을 선출하는데 편장은

96) ‘줄다리기 亦是 陰二三月에 큰 귀줄을 盛大히 다릴 적에는 郡內 各洞里에서 淸兵은 農樂旗 數는 無慮 七八十 餘에 達할 뿐만 아니라 忠州 堤川 原州 長湍院 등지에서 淸兵하여 四五日 동안 每日 數萬名에 이르는 淸兵軍이 集結하여 大盛況을 이룬 적이 非一非再하였으나.....’(김춘식, 1985년) 충주문화원, 「목계별신제편」, 『충주의 향토사』, 충주문화원, 2004, 91쪽.

97) 제보자 : 최규하, 여, 1934년생, 소태면 인다락 출생.

반드시 목계 지역주민이 하였다. 줄다리를 하다가 불리해지면 청병을 하게 되는데 원주, 충주, 제천, 장호원 등지의 외부인을 부른다. 이는 줄다리를 할 때에 이미 원주, 충주, 제천, 장호원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줄다리기 장소에 참석한 것을 의미한다. 갑자기 청병을 해서 온다는 것은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에서 참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복장은 각 편에서 각기 준비한다.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복장의 색상이나 형태를 다양하게 꾸민다.⁹⁸⁾

(표-5) 줄다리기 시 복장 모습

중앙깃대	평의 풍지깃으로 장식
동편깃대	노란색 기에 빨간색 끝동(5~6개) - 남성을 상징
서편깃대	하늘색 기에 흰색 끝동(5~6개) - 여성을 상징
대장복장	모자 - 앞 : 공작미 / 뒤 : 색실(남색+빨강) 끈 : 구슬 중단 - 사또복장과 동일 / 소매 : 노랑+빨강+파랑 띠 - 노랑
별 감	모자 - 앞 : 초록 / 옆 : 전체 공작미 중단 - 빨강 띠 - 없음
토 인	모자 - 갓의 형태와 유사 중단 - 흰색 두루마기, 복근(조끼형태) 띠 - 노랑
책 절 입	모자 - 대장 모자의 형태와 동일 중단 - 흰색 두루마기, 복근(조끼형태) 띠 - 노랑
여 장 복	모자 - 남바구(죽두리 형태) 중단 - 치마저고리(특정색상 없음)
중 복	모자 - 고깔(벼 재질) 중단 - 흰색 두루마기(소매의 길이가 김) 띠 - 빨강(어깨에 엮갈려 땀)

줄의 운반은 원줄만 끈 뒤에 모두 같이 줄을 들어 줄터로 옮긴다. 동편과 서편이 같은 시각에 움직여 줄터에 같이 도착하기 때문에 줄을 운반하다 마주치면 용두를 들어 올리면서 기전 제압을 하기 시작하며 싸움이 시작된다. 원줄의 둘레와 길이가 본래 굵고 길어서 줄의 운반은 쉽지 않았다. 도편장이 용두 위에 올라가 진두지휘를 한다. 이에 대규모의 인원이 동원되어 한마음으로 움직인다. 줄 터까지의 거리는 약 150m 되었다. 줄터에 이르러서 종줄을 연결한다.

줄고사는 줄을 운반하여 종줄을 모두 연결하여 완성이 되면 줄다리기를 하기 전에 제를 올린다. 제물은 돼지머리, 삼색실과(대추, 밤, 꽃감), 과일(사과, 배), 시루팥떡, 통북어, 제주, 정화수를 준비하여 진설한다. 유교식 제의로서 제행된다.

용두걸기는 도편장의 지휘에 따라 이동하면서 동편과 서편이 마주서게 되면 본격적으로 용두 걸기를 한다. 이때에는 밀고 당기기의 시비를 걸어서 비속어까지 쓰면서 실랑이를 한다. ‘벌려라’, ‘끼워라’, ‘당겨라’, ‘여자가 와라’, ‘아니다 남자가 먼저와라’ 등등.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팽팽하게 되게 되면 압줄과 숫줄이 처음으로 맞닿게 된다. 이것을 본 줄꾼들은 합성을 지르면서 ‘줄을 걸자’는 도편장의 구호에 맞추어 ‘눌혀’, ‘당겨’ 하는 등의 지시에 따라 용두를 걸게 된다.

본격적인 줄다리기는 정소리와 동시에 시작된다. 이때부터 승부욕이 발동되어 서로지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한다. 여자들은 치마폭에 돌을 담아서 싸안고 줄다리기를 하였다. 또한 상대방에게 “똥물먹고 뉘저라”하며 서로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 줄의 당김 정도에 따라 도편장의 지휘 아래 휴전을 하기도 한다. 줄다리기를 하다가 형세가 불리해지면 이웃마을이나 원주, 음성, 장호원 주민들에게 청병을 요청하기도 한다. 청병을 요청한다는 것은 상황이 아주 불리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거리가 먼 지역의 주민들에게 청병을 요청한다는 것은 줄다리기를 할 때가 되면 거리가 먼 것도 불구하고, 구경을 오거나 줄다리기에 참여하기 위해 미리 와 있었을 거라는 가능성을 야기시킨다. 승패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편이 이겨야 풍년이 들고 만사가 형통하다는 속설에 의해 동편이 이기게 되어 있다. 만약 서편이 이길 경우는 석전(石戰)

98) 충주문화원, 「목계별신제편」, 『충주의 향토사』, 충주문화원, 2004, 96쪽~97쪽.

으로 이어지기에 다치거나 서로의 감정에 의해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목계 줄다리기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풍농을 기원하는 줄다리기의 원뜻과는 상관없이 남성을 상징하는 동편이 이겨야한다는 것과 외부인의 참여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줄의 처리는 소비형과 보존형으로 나누고, 소비형은 다시 즉시소비형과 송액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보존형은 당산에 줄을 감는 것으로 지역의 수호신과 용신의 결합을 뜻한다. 즉시소비형은 첫째, 지붕 위에 얹거나 문 앞에 걸면 집안에 들어오는 액을 막아준다는 뜻이 있다. 둘째, 배 위에 싣고 나가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 셋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달여 먹으면 임신을 한다. 넷째, 논밭에 널어 놓으면 풍년이 든다. 다섯째, 눈에 보를 막으면 가뭄이 들지 않는다. 송액형(送厄型)은⁹⁹⁾ 줄 터에 길게 늘어뜨려 놓았다가 장마가 쳐서 줄이 떠내려가게 두는데, 두 마리의 용이 사이좋게 헤엄치는 모습을 하면 길조로 여겼다고 한다. 2008년 줄다리를 하고 난 줄은 2009년 정월 대보름 행사시에 달집태우기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2) 남사당패놀이

남사당패 놀음은 자료로만 전해질 뿐, 현재 연희되지는 않는다. 대신 현 시대에 발맞추어 현장에서 ‘진품명품’을 감별하는가 하면, 오래된 물건에 대한 경매시장이 열리기도 하였다. 또한 노래자랑이며, 염색, 목공예품 만들기 등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장이 형성되었다.

남사당패 놀음은 목계지역 별신제의 부대적인 연희로서 서민 중심의 놀이집단이다.¹⁰⁰⁾ 별신제에 앞서 남사당패의 곱뱅이쇠가 곱뱅이를 털고, 의기양양하게 ‘길군악’을 울리며 목계강변으로 입성하였다. 줄을 매고, 포장막과 버나(대접들리기) 살판(땅재주) 덧뵈기(탈놀이) 등의 장치를 설치하였다. 마당 한 가운데에는 명석을 깔았다. 남사당놀이는 풍물, 어름, 탈미

99) 불길한 액을 멀리 떠나 보내고 복을 맞이한다는 뜻으로 액막이 연에 송액영복(送厄迎福)이라는 글귀를 써서 사용하기도 한다.

100) 남사당패놀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충주문화원, 「목계별신제편」, 『충주의 향토사』, 충주문화원, 2004, 91쪽을 참고하였다.

정도가 연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광대놀이(풍물)는 농악과 유사한 형태의 놀이로 ‘길놀이’와 ‘판놀이’로 나뉘어진다. 구경꾼을 모으기 위해 간단하게 행하는 예행적 풍물이다. 길놀이는 집집을 돌며 돌림벽구와 마당씻이를 하기도 한다. 판놀이는 길놀이를 마친 패거리가 준비된 판에 도착하여 행하는 본격적인 풍물이다. 길놀이의 행렬이 자리를 만드는 동안 풍물패가 채상, 진풀이, 무동, 타령 등을 한다. 가락은 흥겹고 힘찬 중부 이북의 웃다리 가락을 주축으로 한다. 의상은 짙이는 등거리, 잠뱅이, 검정등거리에 허리는 분홍색과 노란색 띠를 맨다. 상쇠는 삼색(분홍 남색 노랑)의 띠를 맨다. 머리에는 쇠털병거지, 나비상을 한다. 무동은 분홍치마, 노랑저고리에 땃기를 매어 여장을 한다. 기잡이, 땃각, 날라리꾼은 등거리, 잠뱅이에 머리에는 두건을 꼭 두른다. 그리고 분홍색과 노랑색 띠를 맨다. 양반광대는 얼굴이 비뚤어진 언청이 탈에 바지저고리 두루마기를 입고 정자관을 쓴다.

춤사위는 무동춤, 벽구춤, 찌찍이춤 등이 주종을 이룬다. 인사굿으로 시작하여 돌림벽구, 선소리판, 당산별림, 양상치기, 허튼상치기, 오방감기와 풀기, 무동놀림, 쌍줄백이, 가위별림, 좌우치기, 네줄백이, 마당일채, 밀치기벽구 등 24판 내외의 판굿을 행한다. 판굿이 끝난 후에는 상쇠놀이, 벽구놀이, 징놀이, 북놀이, 장고놀이, 새미받기, 채상놀이, 마당걸이를 하는데, 마지막 순서인 마당걸이는 구경꾼과 한데 어울리는 군무의 형태로 진행된다.

광대줄타기는 광대가 창과 춤 그리고 재담을 곁들이며 줄을 타는 기예를 말한다. 특히 줄꾼인 ‘어름산이’와 어릿광대인 ‘매호씨’가 서로 주고받는 재담이 연회의 주가 된다. 광대는 보통 십 여 가지의 재주를 보유하고 있다. 줄타기를 하기 전에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의례로서 녹밭줄(높이 3미터, 길이 5~6미터) 밑에서 줄고사를 올린다. 재주를 양쪽 줄기둥과 줄 그리고 줄판의 복판에다 조금씩 붓고 ‘어름산이’가 줄에 오른다. 줄에 오른 ‘어름산이’는 ‘중놀이’부터 한다. 강원도 금강산에서 하산한 중의 모습을 중타령을 통해 해학적으로 표현한다. 그런 후에 줄 위를 한참 거닐다가 한가운데 앉아 ‘매호씨’와 재담을 나눈다. 재담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엽불장단, 타령장단, 굿거리장단, 길군악 장단 등에 맞추어 줄을 탄다. 창과 재담이 자아내는 해학과 ‘어름산이’의 풍자적인 동작이 한껏 흥미를 돋운다.

꼭두각시놀이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 연회 시간에 신축성이 있다. 전체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시간을 줄일 때는 놀이 대신 설명으로서 대신하기도 한다. 시간을 늘리고자 할 때는 잔소리와 유머로서 시간을 끌기도 하며, 춤을 오래 추거나 소리를 오래하기도 한다. 무대는 목계 강변 한 모퉁이에 가설한다. 무대는 비교적 높게 설치하며, 인형조종사는 포장 막 속에 들어가서 인형을 조종한다. 극을 연출할 때는 4~5명의 인형 조종사가 포장으로 가린 막 속에 숨어서 그 막 위쪽에 각기 맡은 인형을 등장시킨다. 그런 다음 줄을 당겼다 풀었다 하면서 인형을 조종한다. 서로 대화하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른다. 악기는 풍물에서 사용되는 쥘과리, 북, 징, 장고, 날나리 등을 사용한다. 째이(악사)들은 무대 앞에 앉아서 인형의 동작에 맞추어 연주하며 경우에 따라서 인형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인형(몸통, 팔, 머리 등)의 재질은 오동나무나 버드나무 등이다. 얼굴은 바가지나 나무를 깎아 만들며, 콧등은 두꺼운 나무껍질이나 종이로 나타내며, 수염이나 머리카락은 개털이나 토끼털로 만든다. 색칠은 아교단청으로 얼굴색과 이복구비를 표현한다. 인형의 크기는 대체로 30cm에서 1m 정도이다.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서 박첨지는 크게 만들고, 흥동지는 그보다 조금 작게, 피조리는 여성이므로 더욱 작게 만든다. 인형은 주조종자인 ‘대잡이’ 1인과 ‘대잡이 손(補)’ 2인에 의해 조종된다. 인형의 팔과 머리와 입을 조정하는데, 실을 늘여서 조종하는 방법과 의상을 입힌 인형을 손으로 조종하는 방법, 인형의 머리에 들췌 손가락을 넣어서 조종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3) 제머리마빱 놀이, 선유놀이

‘제머리마빱’은 故 변근수씨가 하회탈을 모방하여 제작한 인형이다. 손과 발에 줄을 연결하여 당기면 제 이마를 때리면서 ‘탁’소리를 낸다. 제머리의 이마를 자기가 때린다 하여 ‘제머리마빱’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작은 지게에 지고 다니면서 줄을 당겨 ‘탁 탁’ 소리를 내면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보지 않을 수 없다. 얼굴은 중, 뿔달린 도깨비 형상, 한쪽 눈만 뜬 형상, 곱상한 각시 등 해학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진다. 몸체는 초등학교 1,2학년 정도이다. 연회를 즐길 때는 지게에 지고 다니지만, 끝나고

나면 장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에 걸어 놓고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의 행사가 있을 때면 풍물패와 함께 ‘제머리마빱’이 앞장서서 흥을 돋운다.

현재 ‘제머리마빱’ 인형은 故 변근수씨 아들 변종근씨가 대를 이어 제작하고 있다. 2009년 8월 ‘꼭두나무인형’으로 특허청에서 승인을 받아 특허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배위에서 하는 불꽃놀이가 있다. 일명 ‘선유놀이’라고 한다. 선유놀이는 단오일을 전후하여 하는 놀이로 목계 강 위에 배를 띄우고 풍물을 치며 불꽃을 즐기는 것이다. 쭈대 십지에 밀랍을 발라 점화지를 만든다. 참숯껍질을 곱게 뺏아서 성냥황을 넣고 불꽃숯마리를 만들어 햇볕에 말린다. 쭈대십지에 성냥황과 참숯 혼합한 것을 싸고 딱총화약을 곱고루 뿌려서 숯 마리를 만든다. 다음은 실로 묶어준다. 배위에서 점화를 한다. 요즈음의 불꽃놀이와 유사하다.

IV. 牧溪別神祭의 傳承과 特性

1. 牧溪別神祭의 傳承

목계별신제는 수운(水運)과 육운(陸運)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여건을 배경으로 하며, 이는 이와 관련된 장시의 형성과도 긴밀한 관계를 지닌다.

목계지역은 남한강 수운의 중심지로서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장시가 형성되었다. 이는 선사시대부터 삶의 터전을 잡은 선조들이 남한강을 끼고 왕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고려시대 설치했던 12조창의 하나인 가흥창(可興倉)이 설치되면서부터 세곡의 운반과 사선으로 운송되는 일반 생활용품이 가흥창과 가까운 목계나루에서 물류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대부터 조선 중기까지 지속되었던 관 주도에 의한 상업 활동에 기반을 두고, 민간에 의한 상업 활동이 보태지면서 이전시기와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대단위 장시가 형성되고 발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다.

정기적인 장시(場市)는 조선후기부터 성행하였다. 목계는 정해진 장날은 없었어도 물길에 좋아 오가는 배가 많으면 한 달에 대여섯 번 나루터에 장이 서고 주막마다 흥청거렸다. 물길에 좋지 못하면 달포가 넘도록 비린 자반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로 물길은 주민의 생활과 목계의 정기를 좌우하는 것줄이었다. 그러나 목계의 장시는 근대화 과정에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조운(漕運)이 쇠퇴했다하더라도 사선들을 이용한 장삿배들은 여전히 목계나루를 오가며 분주했다. 전국의 각종 산물들이 목계나루에 집결하였다. 그러나 소태면 양촌리 앞에 흐르는 ‘막흐레기여울’과 같이 사납고 험한 여울들이 배들을 위협했다. 암석이 산재해있고, 물살이 사나워 잘못하다가 전복되는 사고가 잇따랐다. 그래서 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목계강변 봉계산에 있는 부흥당 신에게 배의 안전과 장삿복을 빌게 되었다. 평소에는 간소하게 하였다. 그러나 확대되어 장사꾼들을 주축으로 특별히 3년마다 한 번씩 굿을 하게 된다. 이것이 별신제를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제의를 행한다는 것은 엄숙하고 금기가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목계별신제의 경우는 금기가 그다지 엄하지 않았으며, 개방적이었다. 이것 또한 마을 주민이 주축이 된 것이 아니라 타지 사람들인 상인들에 의해 벌어지는 굿판이기 때문이다. 상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목계나루는 활기를 띠고 번성하면서 별신제도 함께 발전해 나갔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예나 지금이나 난장문화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목계 또한 장날이나 별신제가 행해지는 날이면 장들뱅이처럼 나타나는 남사당패들이 있었다. 이들이 별신제를 행할 때 마다 참여하여 사람들의 흥을 돋우곤 했다. 이에 별신제의 부대행사처럼 굳어졌을 것이다. 목계별신제는 일반별신제와는 차원이 달랐다. 소규모 마을 제의가 아닌 인근 지역의 모든 주민들과 목계를 이용하는 모든 상인들이 참여하여 별신굿 뿐만 아니라 난장문화를 형성하였다. 이에 대규모의 종합축제형식으로 발전하며 전승되어 왔다. 이런 문화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기본 밑바탕에 존재하고 있었던 무속의 개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삼국시대부터 해석이 가능하다. 자연신인‘성황’을 숭배하고 무당이 제를 올리면서 전승되어진 굿의 형태가 조선시대 유학자들에 의해 배척되면서 유교식 제의로 변모되었을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서민들인 장사꾼들에 의해 다시 삼국시대 때 행해진 자연신인 서낭신에게 배의 안전을 빌고 장시의 활성화를 비는 형태로 변모된 것일 수 있다. 이에 별신제는 삼국시대나 늦어도 고려시대에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바이다.

1930년대 중부의 내륙지역을 관통하는 도로가 개통이 되고 충주~조치원간 충북선 열차가 개통되면서 목계나루의 활기는 시들해져 갔다. 1973년 목계대교가 가설되면서부터 나룻배도 사라져갔다. 또한 1936년 대홍수로 인해 장시의 건물이 거의 전소(全燒)되어 시장의 흔적이 사라져 버렸다. 수시로 섰던 난장 또한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상권의 활성화도 뱃길의 무사 안녕을 비는 행위도, 장사꾼들의 복을 비는 행위도 모두 필요없게 되자 목계별신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목계의 경기가 나빠지면서 제의 비용의 염출이 어렵게 되자 이에 마을주민들의 주도하에 명맥을 이어오다가 단절되고, 동제형식의 당고사만이 명맥을 유지하였다. 1977년 충주문화원의 주최로 우륵문화제에서 ‘목계별신굿’을 선보여 다시금 전승될 수 있는 매개체를 삼았다. 이후 격년에 한 번씩 시행되어 오다가 2005년 목계별신제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목계문화보존

회가 설립되고, 목계별신제의 복원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에 충주문화원과 목계문화보존회, 목계주민들의 주도하에 목계강변을 중심으로 다시금 목계별신제가 부활하게 되었다. 물론 개최시기는 우륵문화제의 부대 행사로서 9월~10월 중에 3일간을 택일하여 제행되었다. 그러나 목계보존회와 목계주민들은 목계별신제의 제일을 예전의 기억을 되살려 4월 초과 일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牧溪別神祭의 特性

목계별신제는 유서가 오랜 교통의 요충지라는 조건 속에서 남한강이라는 수운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전승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목계는 수로 경제의 중심에 놓여있던 곳으로서, 수많은 상인과 객주들이 전을 벌이고 별신굿과 함께 대규모의 줄다리기가 벌어졌던 장시 마을이다. 목계별신제는 본래 농경의례에서 출발하였으나 남한강 상권을 장악한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상권의 활성화와 지역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에 별신제에 부수되는 난장성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¹⁰¹⁾ 또한 상인들의 추렴으로 인해 대규모의 별신굿을 제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목계별신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개방적이다. 타 지역의 별신제들을 볼 때, 우선 제일을 택일하고 제주들을 선정하면 지켜야 할 금기들이 있고 폐쇄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목계의 경우는 타 지역의 금기들을 수용하는 부분이 미약하다. 대표적인 것이 외부인의 출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주체집단이 마을주민들 뿐만 아니라 목계나루를 이용하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유교식제의와 무속식제의가 결합되고 난장문화가 첨가되면서 종합축제적 제의 양상이 나타난다. 별신제는 부흥당 당고사→땃고사→별신굿→난장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이 때 무당이 집례자가 되지만, 마을주민들이 제주가 되어 유교식 제의로서 제를 올린다. 당고사와 땃고사, 별신굿

101) 이창식, 「남한강 유역 별신제의 본포와 의미 - 충주 목계별신제를 중심으로」, 『예성문화』 22호, 예성문화연구회, 2002, 18쪽.

에서도 분향-초헌례-독축-아헌례-종헌례 순으로 제행된다. 본격적인 별신굿은 유교식 제의를 마친 후, 시작된다. 제를 올릴 때 부흥당 당고사가 끝나면 신장대에 신을 모시고, 북계강변에 정박해 놓은 배로 이동하는 것은 무당들이 맡아서 한다. 신들을 영신하고, 오신하고, 송신하는 이러한 절차들은 신들과의 교통을 하는 무당들의 몫이 된다. 별신굿은 3일에 걸쳐 하게 된다. 첫째 날은 영신굿을 하고, 오신굿을 시작한다. 둘째 날은 오신굿을 하며 부수되는 난장문화가 펼쳐진다. 셋째 날은 마지막으로 오신굿판을 벌리고 난 후, 송신굿을 하게 된다. 이 때에는 신장대에 영신하여 모신 부흥당 신들을 본래의 자리로 모셔다 놓는 절차를 밟는다. 이렇듯 마을주민들과 상인들 그리고 인근주민들 모두가 참여하는 종합 축제적 성격을 가진다.

셋째, 상권활성화에 기원의 목적이 있다. 남한강이라는 수로의 교통이 발달하면서 상선(商船)들의 출입이 잦아지게 됨에 따라 배들의 무사안전과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원을 필요로 하였다.

넷째, 상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충북 북부지역의 유일한 별신제이다. 남한강을 중심으로 상류지역은 주로 산간마을로서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제행된다. 그러나 목계별신제는 내륙지역이면서도 목계나루를 중심으로 상인들의 빈번한 왕래로 인해 상업이 발달하였다. 이에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별신제의 비용을 추렴하고, 그것으로 무당을 불러 굿을 하게 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다섯째, 신격이 여성성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동계에서 신격을 우상함에 있어서는 산신, 용신, 서낭신이 있을 경우 남성신을 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목계에서는 남성신이 둘이 되에도 여성신인 서낭신이 최우선이다. 이는 남한강 유역의 신격이 여성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삶의 형태가 투영된 목계줄다리가 있다. 목계를 비롯한 남한강 유역은 강바닥이 험하고 물살이 사나운 여울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목계에서 한양이나 가흥쪽으로 배를 운행하다보면 소태면 양촌리와 가흥리 사이에 ‘막흐레기 여울’이¹⁰²⁾ 있다. 이곳에서 한 해에도 수십 척의 배

102) 이곳을 막희락탄(莫喜樂灘)이라고 한다. ‘막흐레기 여울’, ‘막흐레기 여울’, ‘막흐르기 여울’이라고도 한다. 『大東地志』와 『輿地圖書』에는 막희락탄이 서북쪽 삼십리 하소의 아래에 있다고 했으며, 산계진 하류에 있다는 기록이 있다. 예성문화연구회, 「忠州의 地名」, 예성문화연구회.

가 파손이 되고 인명이나 재산까지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 이를 위해 ‘끌페’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생겨났다고 한다.¹⁰³⁾ ‘끌페’들은 물길을 잘 알기 때문에 배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고 돈을 받았다고 한다. 끌페는 배를 인도하는 일 외에도 배를 끌어주는 일을 하였다. 배가 올라갈 때는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여울의 물살에 밀려 배가 올라갈 수가 없었다. 이럴 때 쓰는 방법 중의 하나가 줄을 배에 매어서 양쪽에서 당기는 것이다. 목계줄다리기는 외줄이 아닌 쌍줄이다. 쌍줄은 원줄에 종줄이 여러 가닥 있다. 배를 끌 때에도 이런 줄이 필요하다. 배의 양쪽에 줄을 매고 여러 명의 장정들이 강변에서 줄을 잡아끌어 배를 올려주는 것이다. 배의 크기에 따라 줄을 당기는 사람의 인원이 달라진다. 목계는 한양을 오가는 큰 배들이 많았다고 한다. 큰 배일 경우는 줄을 잡아당길 인원이 많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럴 경우 인근마을의 모든 장정들이 동원되어 줄을 당겨서 끌어야만 했다. 이것은 목계별신제에서 연희되고 있는 계줄다리기로 볼 수 있다. 목계지역 줄다리기의 경우 승부가 나지 않으면 경기지역이나 강원지역에서 청병을 하여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볼 때, 남한강지역 수운 교통로 상에 위치한 사람들이 공유했던 줄로서 배를 당겨 운송하는 형태가 별신제에서 표현된 것으로 추정된다.

목계나루를 이용하던 상인들의 행렬은 신도로와 열차를 이용한 상권으로 점차 바뀌어 갔다. 이로 인해 제의 비용에 부담을 느낀 주민들이 회의를 열어 유교식으로 간소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평년에 지내던 당고사와 함께 합하여 지내게 되었다. 제일도 당고사의 제일을 전후하여 평년에는 정월 9일에 당고사를 지내고, 별신이 드는 해에는 정월 10일 날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더욱더 위축되고 급기야 단절이라는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목계지역의 민속은 남한강 상류 지역의 민속과 달리 중심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상류지역의 별신제는 유교식과 무속식 제의를 행하면서 풍물, 줄다리기, 박치기 놀음 등 난장문화가 동반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 하류지역의 별신제는 경기도 지방의 별신제인 도당굿(부군당굿)형태가 주를 이룬다. 이에 목계별신제는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별신제 형태를 고

충주시, 1997. 478쪽.

103) 제보자 : 김정열, 남, 1941년생,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 최규하, 여, 1934년생, 소태면 인다락 출생.

루 갖춘 형태의 복합적이면서도 종합축제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그 중 경기도 도당곳을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이 논문은 충주시 엄정면 목계마을에 전승되고 있는 ‘목계별신제’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 과정에서 목계별신제가 전승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남한강유역을 중심으로 상류-중류-하류로 구분하여 목계별신제를 타지역과 비교·검토하였다. 여기서 종합축제적 전통문화의 성격을 지닌 목계별신제가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봄으로써 목계별신제만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는 각종 지리지와 관련 문헌자료를 통해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과 전승문화의 기록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현장 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구술 자료와 기록·민속자료와 함께 전승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료를 문헌 자료와 연결시키고, 남한강 유역의 별신제를 비교함으로써 목계별신제를 고찰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남한강을 중심으로 하되, 남한강 지류에 속하는 산간마을을 포함시켰다. 상류지역인 제천오티마을과 단양 성금마을은 남한강유역에 속하기는 하나 남한강과는 거리상 떨어져있는 마을이지만 남한강을 중심으로 삶을 영위해 온 지역민들의 생활상에 묻어나는 공동체사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또한 직접적으로 물길과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보부상내지 남한강 상인들과의 물류교류로서 간접적이거나 남한강의 민속적 특징을 계승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류지역의 원주 매지마을은 원주의 흥원창과 멀지 않은 산간마을로 교통의 요충지라는 특성을 가지고 제행되어 왔다. 이 마을에 전승되어 온 별신제는 단오제로서 강원도에 주로 전승되어 온 서낭제형의 별신제와는 특이한 양상이 나타난다. 하류지역인 驪州 이포마을은 목계리와 같은 강가에 위치한 마을이다. 별신제는 ‘삼신당굿’으로서 경기도 동부지역이면서도 중·서부지역에서 볼 수 있는 도당굿 성격이 강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에 남한강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전승되어 온 별신제를 중심으로 비교·검토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 남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별신제의 공통점은 내륙지방에서 제행되는 제의이며, 주체는 마을주민이되 무당이 와서 주제한다. 유교식과 무속식 제의가 병합되어 나타나며,

대상신격이 서낭신이라는 것 등이다. 이에 반해 상류지역은 산간마을의 특성을 지닌 풍농과 마을의 무사안녕을 기원하지만, 하류지역은 수운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 및 배의 무사안녕을 기원한다는 제의 목적에 차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류지역인 목계마을과 매지마을은 교통의 요충지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기원의 목적이 매지마을은 상류지역과 유사하며, 목계마을은 하류지역과 유사하다. 이러한 남한강 유역의 별신제 양상은 목계별신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목계별신제만이 가진 개방적이면서도 종합축제적 제의로서의 위치를 자리매김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목계별신제의 특성은 개방적이며, 종합축제적인 제의 양상이 나타난다. 상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충북 북부지역의 유일한 별신제로서 대상신격이 여성신이며, 남한강 유역의 신격이 여성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또한 남한강지역 수운 교통로 상에 위치한 사람들이 공유했던 줄로서 삶의 형태가 투영된 목계줄다리가 목계별신제의 난장문화로써 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은 목계별신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구술자료, 문헌자료를 통해 목계별신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목계별신제는 류덕균을 시작으로 여러 선학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그러나 내용이 간략하고 현장에서의 전통적 원형이 사라져 마을주민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구술자료로써 전해진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드러난다. 목계별신제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문헌자료 자체가 없기에 목계별신제만이 가지고 있는 원형성을 알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또한 충주댐 건설 전후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물길을 이용해 형성 발달된 목계포구가 충주댐 건설로 인해 물길이 바뀌고, 근대화 과정에서 육로가 발달되면서 목계별신제의 쇠퇴와 단절, 그리고 복원이라는 변화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목계마을을 중심으로 전통문화 복원을 위한 공간 만들기 및 마을가꾸기, 체험 프로그램 개발, 문화역사 자원 발굴 등 ‘목계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전통문화적으로 전승되어 온 목계별신제를 원형 자체로 복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문화·역사마을과 차별화된 전략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문화·역사마을은 한낱 허울뿐인 사업으로 전락

하게 될 것이며, 그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목계별신제의 원형적 복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 參考文獻

1. 古文獻

『國譯日省錄』
『高麗史』 志
『高麗史地理志』
『高麗史』 세가
『高麗史』 열전
『東文選』
『大東地志』
『萬機要覽』
『三國史記』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燃藜室記述』
『五洲衍文長箋散稿』
『魏志』
『朝鮮王朝實錄』
『忠清北道邑誌』
『忠清北道輿地集成』
『忠州郡邑誌』
『湖西邑誌』
『後漢書』

2. 基本資料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 신앙 上, 下』, 국립민속박물관, 2007.
김경열, 「목계의 정신과 문화」, 목계향우회, 2002.
김우철역주, 「충청도」, 『여지도서』 10, 흐름, 2009.
김영진, 「牧溪別神祭」, 『목계별신제 학술대회』, 충주문화원·충원목계문화보존회, 2007.
김현길 편저, 『忠淸北道輿地集成』, 충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4.
김희찬, 「충북 북부지역의 별신과 줄다리기의 상관성 고찰」, 『충북학』 제8

- 집, 충북학연구소, 2006.
- 류덕균, 「목계지역의 민속고」, 『중원어문학』 1집, 건국대 국어국문학회, 1985.
- 변종근, 「목계의 전승 문화」, 『목계별신제 학술대회』, 충주문화원, 2007.
- 어경선, 「충주의 전통 문화 지킴이, 목계 마을」, 『삶의 터전, 마을이야기』, 예성문화연구회, 2008.
- 엄정면, 『엄정면지』, 엄정면지편찬위원회, 2008.
- 예성문화연구회, 「忠州의 地名」, 예성문화연구회 · 충주시, 1997.
- 윤동환, 「별신의 양상과 성격」, 『한국무속학』 10, 한국무속학회, 2005.
- 李魯榮, 「牧溪 富興堂 堂告祀」, 『郷土史研究』, 3집, 韓國郷土史研究全國協議會, 1991.
- 이창식, 「오티별신제의 현지 연구」, 『어문연구』, 충남대학교 문리대학 어문연구회, 1999.
- _____, 「제천지역의 오티(五峙) 별신제에 대하여」, 『충북향토문화』 10집, 1999.
- _____, 「충북지역의 민속 특성과 문화권 모색」, 『충북학』 2집, 충북학연구소, 2000.
- _____, 「마을축제 오티별신제」, 집문당, 2001.
- _____, 「남한강 유역 별신제의 분포와 의미 - 충주 목계별신제를 중심으로」, 『예성문화』 22호, 예성문화연구회, 2002.
- _____, 「남한강 유역 별신제의 분포와 의미」, 『지역문화연구』 1집, 지역문화연구소, 2002.
- _____, 「남한강 유역 민속문화의 정체성과 전망」, 『충북향토문화』 13집, 2002.
- _____, 「충북의 민속문화」, 푸른세상, 2003.
- _____, 「마을공동체의례 별신제의 비교연구방법」, 『민속연구』,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6.
- _____, 「목계별신제의 문화재 지정방안과 문제점」, 『목계별신제 학술대회』, 충주문화원, 2007.
- 이한길, 「원주시 매지리 회춘마을 단오제에 있어서 신격의 정체」, 『한국무속학』 17, 2008.
- _____, 「원주시 매지리 회춘마을 단오제의 실상」, 『강원민속학』, 2008.
- 장정룡, 「원주 백운산 단오서낭제」, 『태백』 6월호, 강원일보사, 1993.
- 조정현, 「별신굿의 물적 기반과 지역경제」, 『비교민속학』, 비교민속학회, 2004.

- _____, 「별신굿과 문화권역」, 『공동체 지역문화와 문화권역』, 역사문화학회, 2009.
- 최일성, 「역사적으로 본 가흥과 목계」, 『목계별신제 학술대회』, 충주문화원, 2007.
- 충북향토사연구협의회, 『충청북도 각 군읍지』, 충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7.
- 충주문화원, 「마을신앙 편」, 『충주의향토사』, 충주문화원, 2001.
- _____, 「목계별신제 편」, 『충주의향토사』, 충주문화원, 2004.
- 황인완, 「여주 이포리 ‘三神堂’긋의 성격」, 『한국무속학』 5집, 2002.

3. 論文

- 김도현,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윤동환, 「동해안 굿의 전승과 변화」,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표인주, 「전남의 당신화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94.

4. 單行本 및 其他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세시풍속·전승놀이:단오」, 『한국민속대관』 4권.
- 강릉시오죽현·시립박물관, 「한국의 무신」, 강릉시오죽현·시립박물관, 2004.
- 康龍權, 「釜山地方의 別神굿考」, 『문화인류학』 3, 한국문화인류학회, 1970.
- 경기도박물관, 『경기민속지』, 경기도박물관, 2000.
- 국립문화재연구소, 『충청북도·세시풍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 김의숙, 「원주군의 민속」, 『원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원도·원주군, 1994.
- 金泰坤, 「성주 信仰考」, 『後進社會問題 研究論文集』 2, 慶熙大 後進社會問題研究所, 1969.
- 김택규·김학휘·이영진·박성용·오병식·석대권, 「촌락실태조사 소편람」,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1.
- 김현선, 「경기도 도당굿 무가의 현지연구」, 집문당, 1995.

디지털 강릉문화대전

디지털 성남문화대전.

박호원, 「고려 무속신앙의 전개와 그 내용」, 『민속학연구』 창간호, 국립민속박물관, 1994.

서종원, 「양구 지역 동제의 현황과 특징」, 『강원민속학』 19집, 강원도민속학회, 2005.

徐廷範, 「言語가 샤만에게 주는 影響」, 『샤머니즘의 現代的 意味』, 원광대학교 민속학 연구소, 1973.

신경철, 「지명에 나타난 원주의 토속신앙」, 『강원민속학』 19집, 2005.

趙熙哲, 「백운산 천은사에 대한 고찰」, 『석보 정명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혜안, 2000.

여주군, 『驪州郡誌』, 여주군지편찬위원회, 1989.

원주시, 「민속·문화재편」, 『원주시사』, 원주시, 2000.

이선철, 「충주지역의 부곡제」, 『충북의 鄉·所·部曲』, 충북향토문화연구소, 1999.

李能和, 「朝鮮巫俗考」, 『啓明』 19호, 啓明俱樂部, 1927.

이창식·안상경, 「죽령국행제 조사연구」, 박이정, 2003.

이철영, 「은산별신제」, 화산문화, 2002.

李惠求, 「別祈思考」, 『藝術論文集』 3, 藝術院, 1964.

임재해, 「하회별신굿에 나타난 옛 제의의 자취와 별읍의 전통」, 『안동문화』 14집,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1993.

장기덕, 「중원향토기」 2, 예성문화연구회, 1997.

조정현, 「별신굿의 전승력과 축제적 연행의 원형」, 안동대 박사학위 논문, 2007.

중량문화원, 「봉화산 도당굿」, 중량문화원, 2001·2005.

중원문화재연구원, 「충주 장미산성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중원문화재연구원,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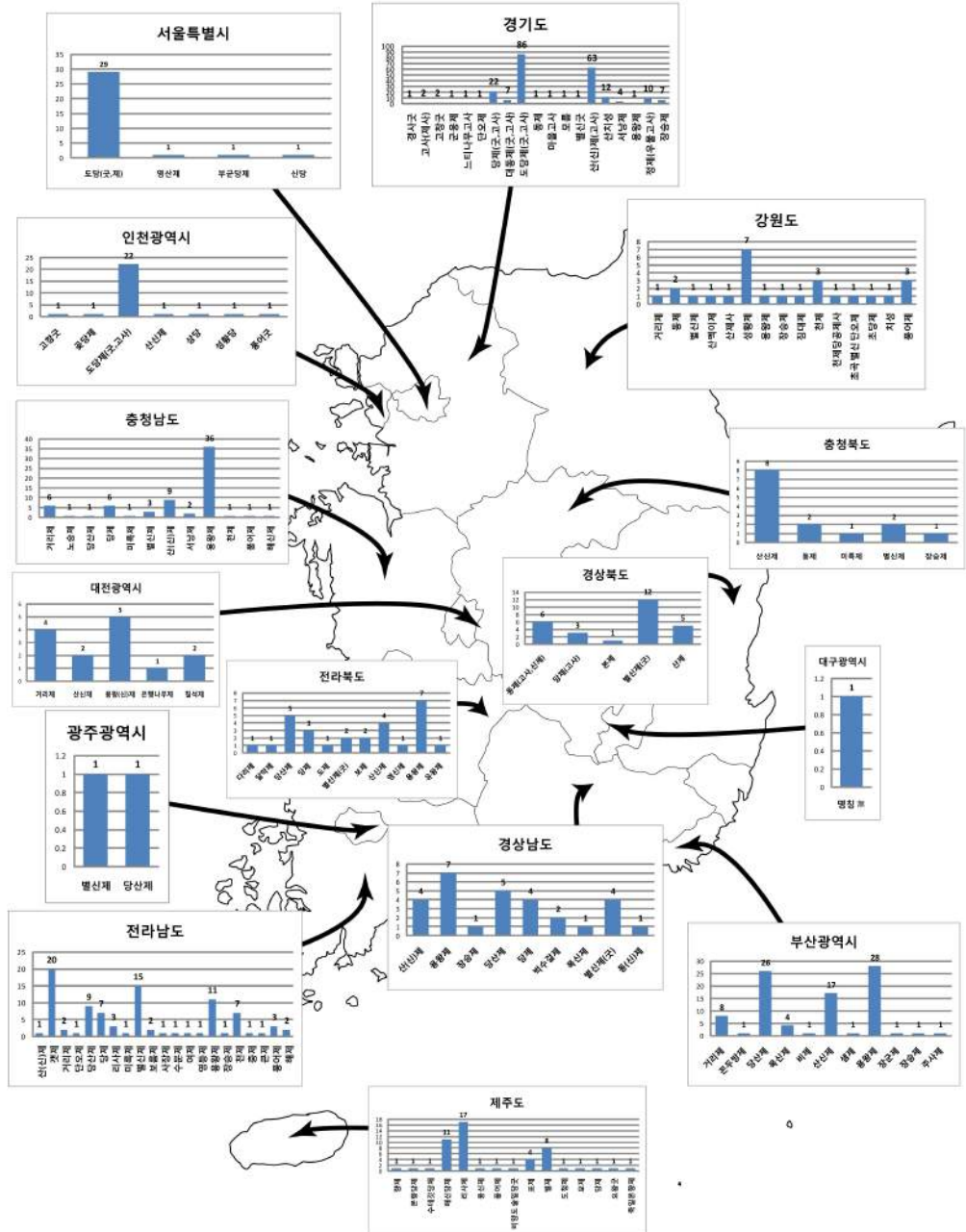
충주시, 『충주시지』, 충주시,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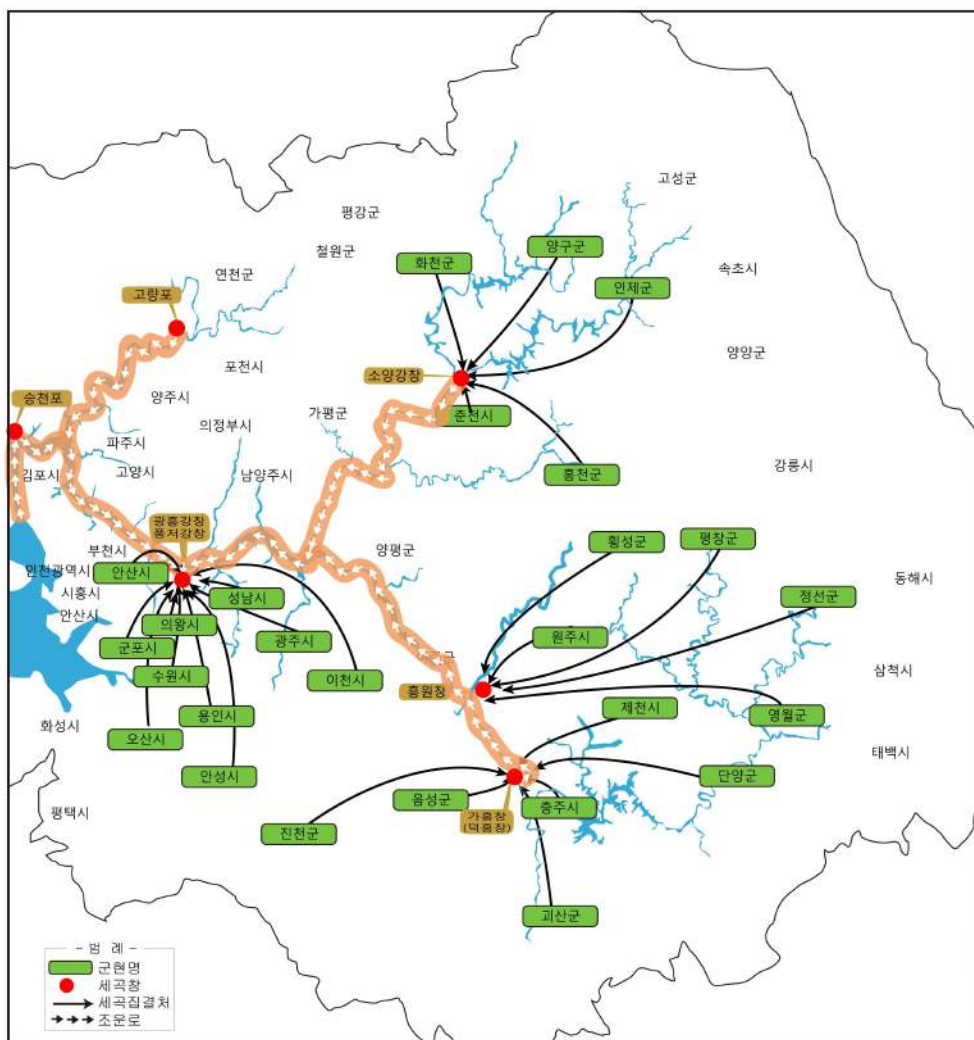
충주박물관, 「충주 임정면의 문화유적」, 충주박물관, 2001.

홍진표, 「안동 줄다리기 一考」, 『안동문화』 2집,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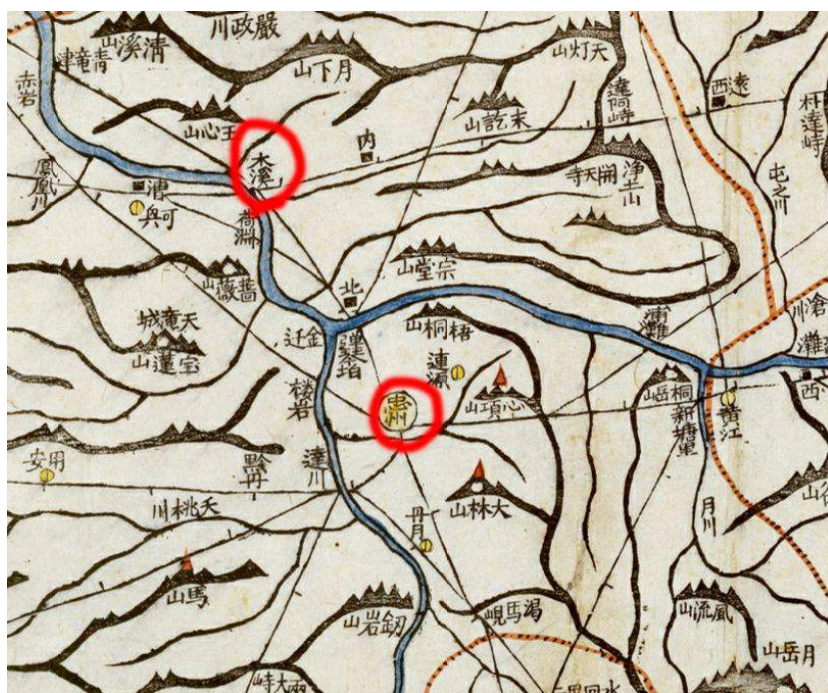
※ 부록

(부록-1) 별신제 전국 분포현황





(부록-2) 한강의 세곡 집결지 및 조운로



(부록-3) 대동여지도 -목계



(부록-4) 목계마을 전경 및 목계나루 표지석



(부록-5) 2005년 목계별신제 재현 진설 전경



(부록-6) 예전의 부홍당 전각과 한글 현판



(부록-7) 현재의 부흥당 전각과 한문 현판



(부록-8) 부흥당 오른쪽 바위에 치성



(부록-9) 부흥당 뒤편에 제물 진설



(부록-10) 예전의 부흥당 내부(산신, 서낭신, 용신) 모습



(부록-11) 두 번째 서낭신



(부록-12) 첫 번째 서낭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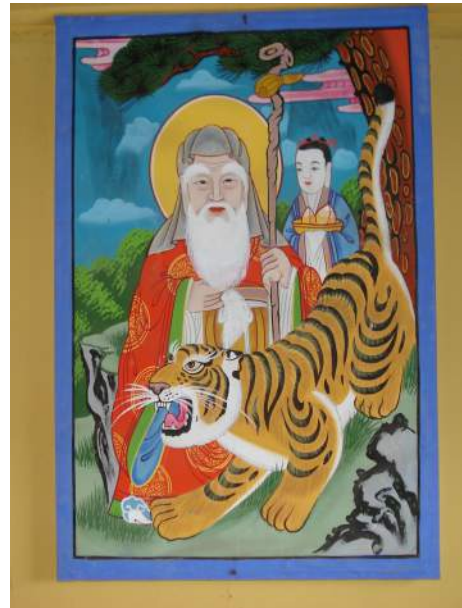
(부록-13) 세 번째 서낭신



(부록-14) 현재 서낭신



(부록-15) 예전의 산신 모습



(부록-16) 현재 산신 모습



(부록-17) 예전의 용왕신 모습



(부록-18) 현재 용왕신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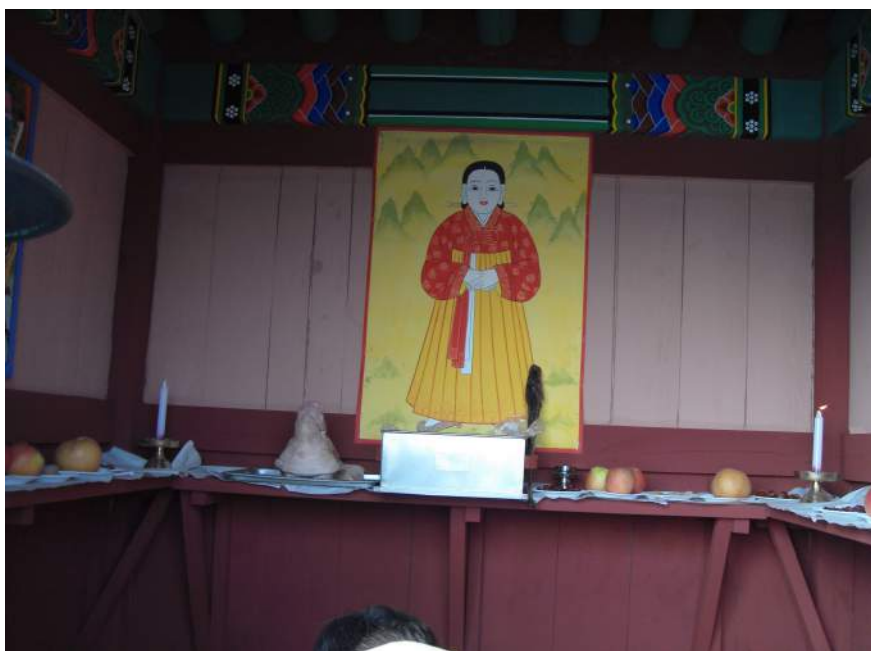
(부록-19) 안택굿 전경1



(부록-20) 안택굿 전경2



(부록-21) 부흥당 당고사 지내기 전의 풍물놀이 모습



(부록-22) 부흥당 고사 시 서낭신 앞에 진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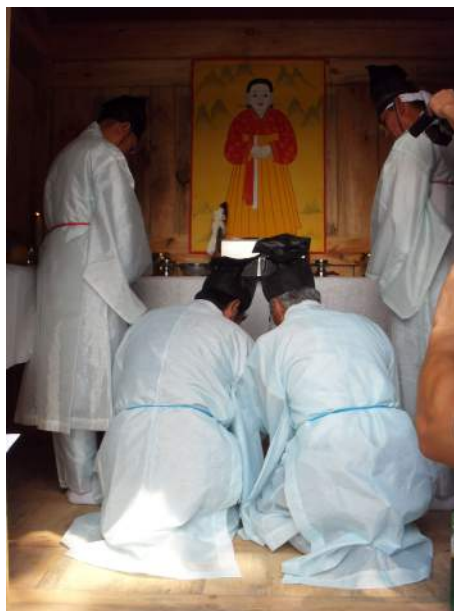
(부록-23) 부흥당고사 시 산신 앞에 진설 전경



(부록-24) 부흥당고사 시 용신 앞에 진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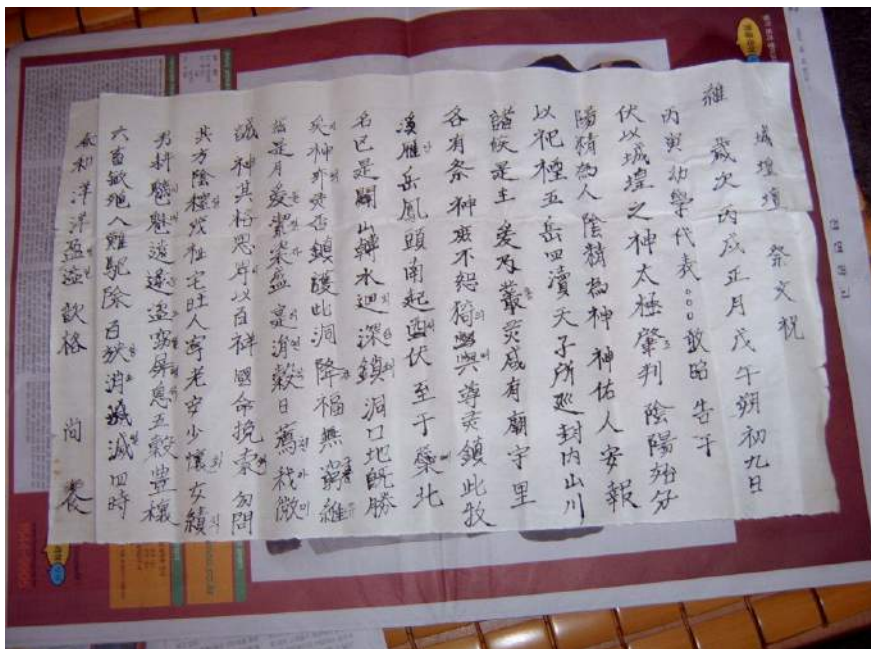
(부록-25) 부흥당고사에 참가한 제관들



(부록-26) 부흥당고사 지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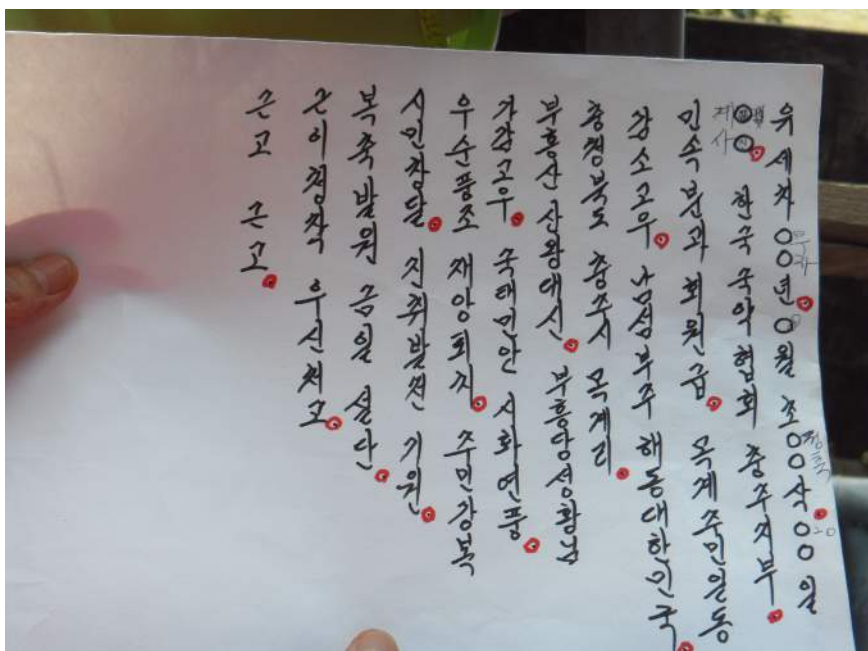
(부록-27) 부흥당고사 시 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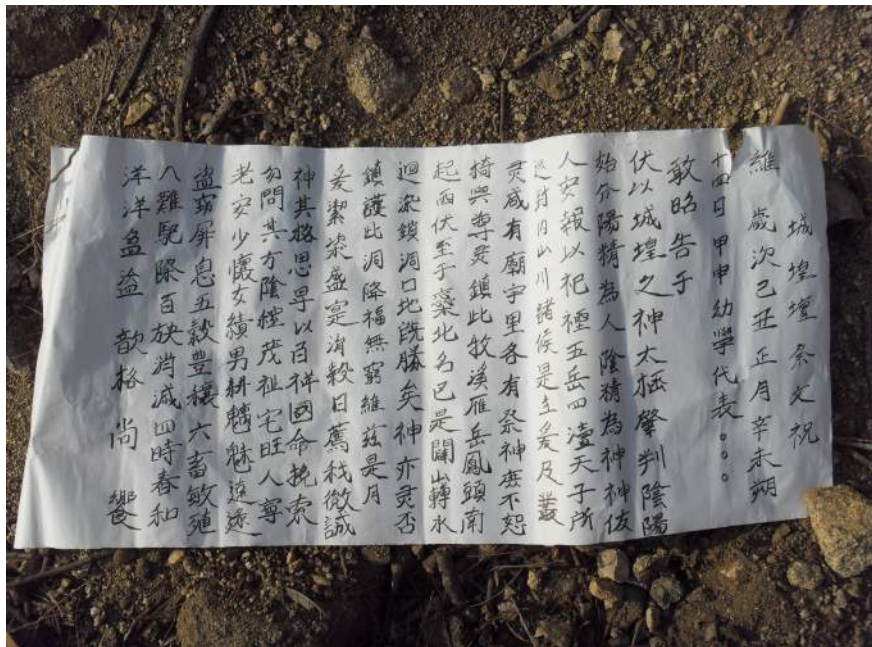
(부록-28) 2006년 성황단 제축문



(부록-29) 2007년 정해년 축문



(부록-30) 2008년 무자년 축문



(부록-31) 2009년 성황단 제축문



(부록-32) 부흥당 주변 금줄 정리



(부록-33) 부흥당 신을 영신하여
강변으로 모시고 가는 전경



(부록-34) 목계별신 제장으로
향하는 제관들



(부록-35) 용신을 영신하는 전경



(부록-36) 뱃고사를 지내는 모습1



(부록-37) 뱃고사를 지내는 모습2(평년 당고사)



(부록-38) 뱃고사 시 진설 모습



(부록-39) 부흥당 신 별신제장에 모시기



(부록-40) 별신굿을 하기 전 유교식 제의 거행 모습



(부록-41) 별신굿 장면



(부록-42) 제머리마빱이 놀이



(부록-43) 목계 줄다리기의 암줄과 수줄 그리고 비녀목



(부록-44) 줄 운반



(부록-45) 목계 개줄다리기 줄



(부록-46) 줄다리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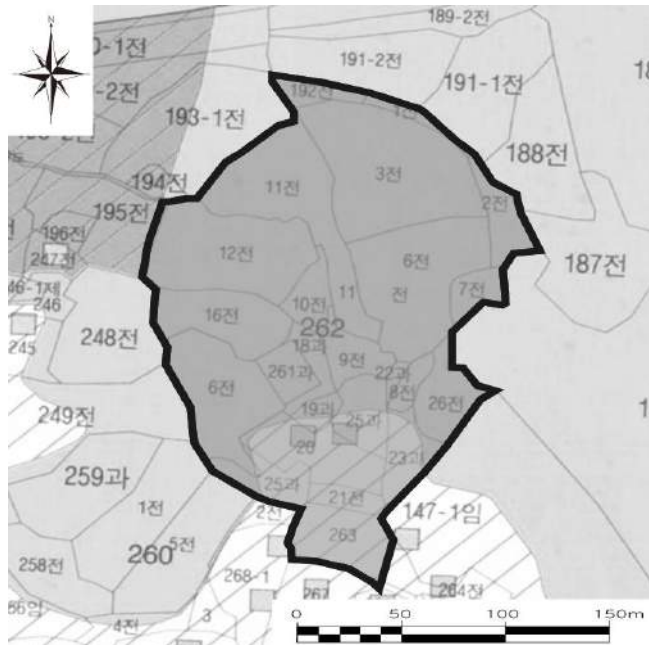
(부록-47) 줄다리기 줄로 만든 달집



(부록-48) 남사당패 놀이



(부록-49) 예전의 가흥창 지 전경



(부록-50) 가흥창 지 구획도



(부록-51) 가흥창 주초석



(부록-52) 황포돛배 시연



(부록-53) 목계 강가에 뗏목 시연